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환경조경학 석사학위논문

순교성지를 위한 도시공원 설계:
서소문공원을 중심으로

Seosomun Park Design & Planning:
Sacred Memorial as Urban Park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윤 효 선

순교성지를 위한 도시공원 설계:
서소문공원을 중심으로

Seosomun Park Design & Planning:
Sacred Memorial as Urban Park

지도교수 조 경 진

이 논문을 환경조경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윤 효 선

윤효선의 환경조경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_____(인)

부 위 원 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초빙심사위원 _____(인)

국문초록

도시공간은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변화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와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어떤 공간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가지기도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서울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을 겪으면서 역사적 층위의 보전과 기억 그리고 현대 도시 환경에 맞는 개발 사이의 접점을 찾는 실천적 대처가 미흡했다. 기존 역사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단순히 기념 오브젝트(Object)를 설치하는 메모리얼을 벗어나 역 기념비(Counter-Monument)적 관점에서 기억의 대상과 시민이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기억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역사·문화적 층위를 가진 서소문지역의 장소성의 기념, 대상지 주변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을 고려한 새로운 메모리얼 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소문지역은 역사적으로 죄인들을 처형하는 행형장으로 천주교박해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순교자를 배출한 순교성지라는 장소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현재는 시청과 서울역에 인접한 입지적 조건을 가진 도시 중심지로서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서울역 일대가 문화·상업지구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접한 서소문공원도 발맞추어 국제적 순교성지로 재탄생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민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도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공간 제공의 기능 및 종교적 기념공간으로서 지역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절충적 공간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어 : 메모리얼, 메모리얼 디자인, 천주교 성지경관, 서소문공원

◆ 학 번 : 2010-23905

〈 목 차 〉

제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제2장. 이론적 고찰	6
1절. 메모리얼 디자인의 이해	
1. 메모리얼의 개념과 주요쟁점	6
2. 메모리얼 디자인의 변화	8
3. 메모리얼 디자인의 접근방법	16
2절. 한국 천주교 순교성지의 이해	
1. 한국 천주교 성지경관과 구성요소	19
2. 한국 천주교 성지경관의 사례	20
3절. 서소문지역의 역사·문화 이해	
1. 서소문 밖 형장과 천주교 박해	21
2. 서소문 성문과 경관의 변천	27
3. 서소문공원의 역사	31
제3장. 대상지 분석	33
1절. 설계여건분석	
1. 대상지 개요	33
2. 대상지 분석	34
3. 관련 계획	52
2절. 이용현황	
1. 종교 활동현황	54
2. 공원이용 및 관리현황	55

3절. 소결	57
제4장. 기본구상	60
1절. 설계개념과 기본방향	
1. 설계개념	60
2. 설계전제 및 기본방향	62
2절. 설계 전략	65
3절. 공간기본구상	
1. 이용자 예측	68
2. 공간 내러티브	69
3. 공간 프로그램	70
제5장. 기본설계	73
1절. 종합계획	73
2절. 세부공간설계	80
3절. 주변지역과 연결방안	88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92
■ 참고문헌	97

〈 표 차례 〉

[표 1] 메모리얼 접근방법의 구분	17
[표 2] 근대와 현대 메모리얼 표현특성의 비교	18
[표 3] 한국 성지경관 사례 분류	19
[표 4] 서소문성지 천주교 순교자 현황	24
[표 5] 대상지 시설의 구분	33
[표 6] 설계방법의 구분	63
[표 7] 공간별 기본 설계방향	64
[표 8] 감성체험의 요소	67
[표 9] 이용자 유형의 구분	68
[표 10] 감성·체험 공간 프로그램과 연출방법	90
[표 11] 명상·치유 공간 프로그램과 연출방법	91
[표 12] 메모리얼 공간 프로그램과 연출방법	91
[표 13] 도시생활공간 프로그램과 연출방법	92

〈 그림 차례 〉

[그림 1] 대상지의 공간적 위치 및 범위	4
[그림 2] 미국 워싱턴 기념탑	8
[그림 3] 블라미르 탈틴의 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 1920	9
[그림 4] 볼레의 뉴턴 기념비 계획안, 1784	9
[그림 5] 9/11 메모리얼 조감도	10
[그림 6] 9/11 메모리얼 전시관 조감도	11
[그림 7]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 미국 워싱턴	12
[그림 8] 베를린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	13
[그림 9] 유대인 기념관, 독일 베를린	14
[그림 10] 오클라호마시티 메모리얼, 미국 오클라호마	14
[그림 11]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 워싱턴	15
[그림 12] 나가사키 평화 기념관, 일본 나가사키	15
[그림 13] 절두산 순교 기념관	20
[그림 14]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20
[그림 15] 새남터 순교 기념지	21
[그림 16] 조선시대 서소문 밖 행형장 터의 위치와 전경	23
[그림 17] 성지별 순교성인 배출 수	25
[그림 18] 옛 서소문의 모습	27
[그림 19] 김정호의 수선전도, 1840년대	27
[그림 20] 서소문 터 표석의 모습	28
[그림 21] 19세기 서소문 네거리	29
[그림 22] 1930년대 서소문 네거리	30

[그림 23] 서소문공원 최초 계획도	31
[그림 24] 1992년 서소문공원 계획도	31
[그림 25] 서소문공원 리모델링 계획도	32
[그림 26] 서소문고가차도 공사 전·후의 모습	32
[그림 27] 서소문공원 전경	33
[그림 28]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도	43
[그림 29] 약현성당 내 서소문순교자 기념관	44
[그림 30] 약현성당 내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	44
[그림 31] 문화역서울284 전시관	45
[그림 32] 공원 내 배치된 다양한 환경조형물	47
[그림 33] 공원 내 현 순교자 기념탑과 윤관장군 동상	47
[그림 34]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및 꽃 도매시장 도면	49
[그림 35] 서소문공원 자원재활용센터 도면	51
[그림 36] 서울역 컨벤션 사업 계획 투시도 및 조성	52
[그림 37] 서울역 컨벤션 사업 조성 부지	52
[그림 38] 성곽길 4개코스	53
[그림 39] 서울 한양도성	53
[그림 40] 서울 성지순례 코스 및 참배식 전경	54
[그림 41] 서소문 순교자 현양 미사 전경	55
[그림 42] 서소문공원 이용자 설문조사	56
[그림 43] 약현성당과의 연결방안	88
[그림 44] 현 약현성당 정문경관	89
[그림 45] 약현성당 정문경관 위한 대안	89
[그림 46] 서울역 컨벤션센터와의 연결방안	90
[그림 47] 대상지 주변 고가로/지하로 및 구조물 이전 및 철거	91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공간은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변화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와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어떤 공간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가지기도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서울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역사적 층위의 보전과 기억 그리고 현대도시 환경에 맞는 개발 사이의 접점을 찾는 실천적 대처가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서소문공원을 대상으로 도심 내에 위치한 종교적 기념경관 또는 메모리얼(Memorial)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역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절충적 공간계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메모리얼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상에 자리 잡은 사적 경험과 사회가 갖는 공동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다.¹⁾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지인 서소문공원 부지는 만초천, 서소문 밖 형장, 중앙시장, 철도 집하장 및 하역장, 근린공원 등의 모습으로 변모하면서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내포하는 장소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입체도시공원으로서 지하 및 지상에 복합적 도시기반 시설 및 상업시설이 공존하고 있다.

서소문공원 일대는 조선시대에 죄인들을 처형하는 행형장으로 지정되면서 신유박해(1801년)·기해박해(1839년)·병인박해(1866년) 등의 천주교박해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 곳이다. 한국 최대 순교지로 1984년 시성된 한국 순교

1) 이상석, “한국전쟁 메모리얼의 설계요소에 나타난 기념성”, 『한국조경학회지』 38(1): 12~24, 2010.4, p.13

성인 103위 가운데 44위가 순교하였으며 상징 모뉴먼트인 천주교 순교자 현양탑이 서소문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다. 서소문공원 일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회건축양식인 약현성당이 지어진 이유도 이러한 서소문 지역의 장소적 역사성과 관련이 깊다. 때문에 약현성당 내에는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 및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소문공원에서 서소문 순교자 현양미사와 같은 정기적인 종교 행사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서소문공원 일대는 천주교 단체에서 공유하는 특정한 공동의 기억 외에도 다양한 의미와 기억으로 시민들의 심성에 자리 잡고 있다. 즉, 종교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기억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서소문공원의 실질적인 메모리얼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천주교인과 기억의 대상 뿐 아니라 일반인과 기억의 대상간의 관계, 기억하는 행위 자체를 고찰해야 한다. 특정 집단이 가진 기억의 전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소문공원에 다양한 역사적 층위가 공존하는 수용적, 가변적 메모리얼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도시 계획적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서소문공원은 새로운 메모리얼 공간으로 디자인될 현실적 가능성이 높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지역에 국제회의시설 및 콘서트홀 조성계획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역 남부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써 서울역 일대가 새로운 복합 문화·업무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울역과 인접한 서소문공원도 이에 발맞추어 역사·문화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성곽길을 따라 산책하는 옛 순성길 코스가 조성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대상지 일대에도 순성길 코스의 하나로 옛 한양도성 4대문4소문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소실된 서소문(西小門) 성문의 터가 위치하

고 있다. 서소문공원은 서소문의 문화 ·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순성코스의 한 목적지로서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도시 관광형 공원(Destination Park)이자 어반코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서소문공원의 장소성과 역사성에 대한 재조명과 리노베이션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현 시점에서 서소문공원의 사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작년 2011년 12월 8일 서소문공원 역사관광자원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및 2012년 3월 11일 중구청과 서울대교구가 서소문공원 역사 ·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메모리얼은 모뉴먼트에 치중한 오브젝트 개념의 독립적인 형태를 추구했다면 현대는 방문자와 기억의 대상과의 관계, 기억하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는 총체적, 공간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조경설계를 통한 메모리얼 공간 조성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본 설계에서는 서소문공원을 둘러싼 도시적, 종교적, 문화적 용도와 가치 부여의 혼재를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유도하는 조경설계 및 지하 공간 리노베이션 계획을 제안 하고자 한다. 또한 포괄적인 의미의 메모리얼로서 지적이며 감성적인 공간으로 과거의 기억과 현재, 미래의 도시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메모리얼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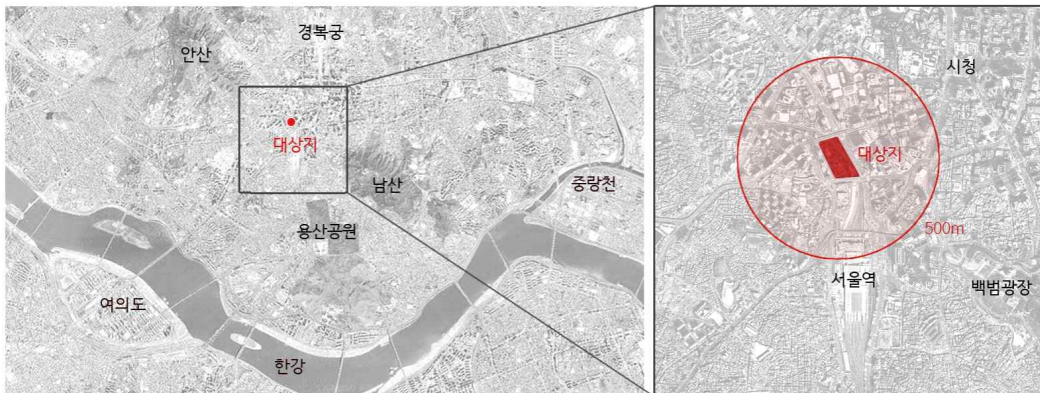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메모리얼은 도시 계획적으로 지정된 영역 안에만 조성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적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변 도시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결방안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현재 경의선 철도 및 고가로, 지하철도로 서울 중심지와 단절된 공원의 물리적 · 시각적 접근을 및 서소문지역이 갖는 특별한 종교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약현성당과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1973년 11월 22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서소문근린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적으로 대상지는 동측의 시청 및 서울 중심부와 서측의 비교적 낙후한 상업·주거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일대로 총 면적은 17,340m²이다. 지리적으로는 서울역 북측으로 약 500m, 시청 남서방향으로 약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 숭례문, 남산,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교회건축양식을 가진 약현성당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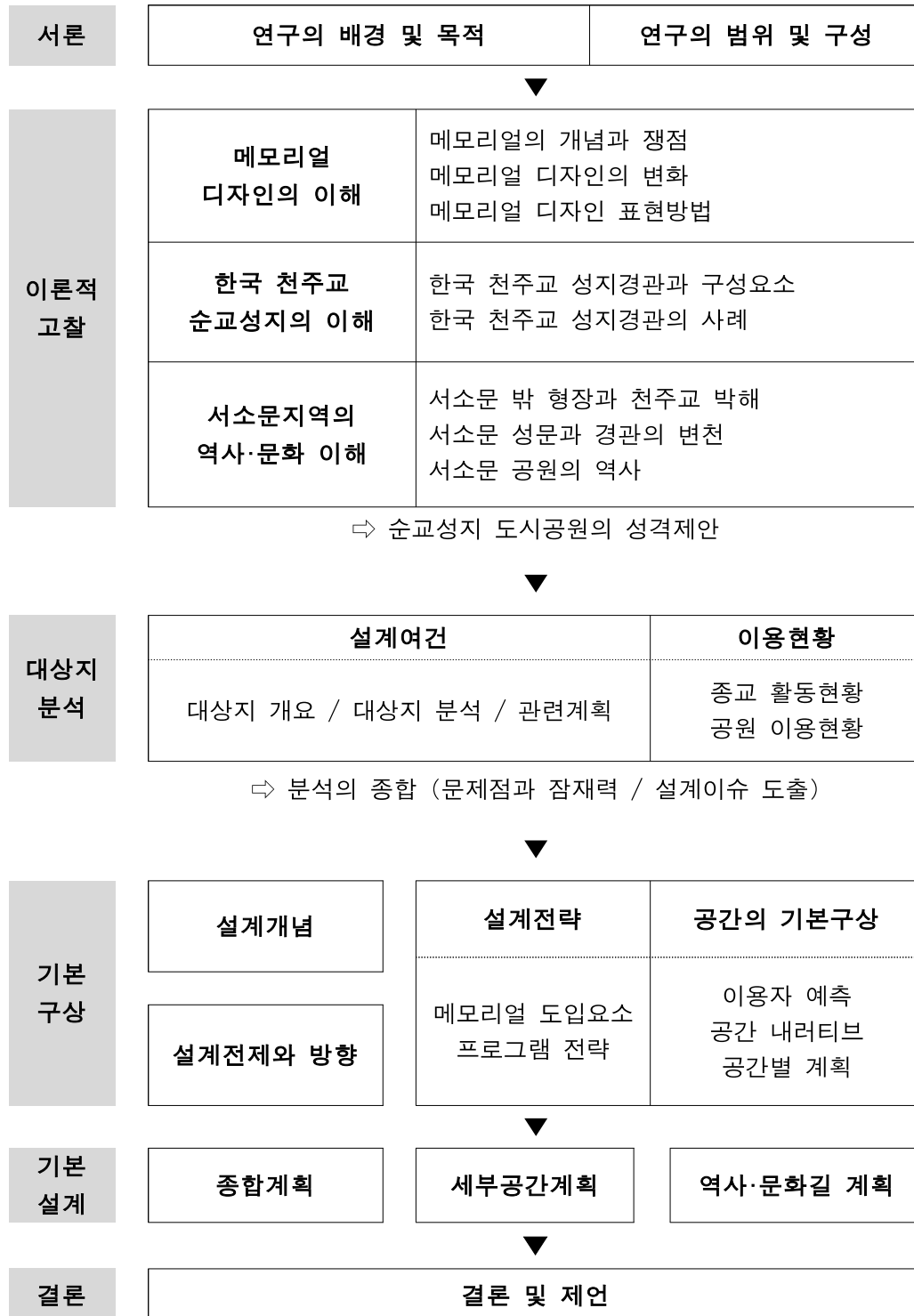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의 공간적 위치 및 범위

2) 시간적·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시대부터 현재 근린공원 조성된 시기까지의 역사적 층위를 모두 포함한다. 내용적으로는 각 시기마다 서소문지역의 장소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 문화, 종교적 사건을 고찰 할 것이며 메모리얼 공간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문헌조사 및 현장답사의 현황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서소문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하고 공간, 시설,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계획안 도출과 주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물리적 방안 또는 프로그램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메모리얼 디자인의 이해

1. 메모리얼의 개념과 주요쟁점

메모리얼(Memorial)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징하는 물체(Object)이지만 기억하는 행위와 사건의 경험을 재생산하는 의미를 포함한다.²⁾ 여기서 기억(記憶)한다는 것은 지나간 경험을 간직하였다가 추후에 재생 또는 재인식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현재화하는 정신적, 심리적 현상을 일컫는다.³⁾ 이와 비슷한 의미의 기념(紀念)은 공공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기억의 작업이다. 기념의 사전적 정의는 “과거의 사건을 상기할 근거로 삼는 행위 또는 물건”이다. 영어로는 메모리얼(Memorial)과 모뉴먼트(Monument)의 두 유사어가 있다.⁴⁾

메모리얼(Memorial)은 포괄적 의미로서 추모, 회고, 치유, 의식, 집단적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지적이며 감성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영혼을 위로하고 공동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반면 집단의 기억을 표상(表象)하는 모뉴먼트(Monument)는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단언하는 상징물이다. 모뉴먼트 건립은 한 사회의 가치를 단면적으로 표상하고, 그 가치를 제도화 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성향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도심에 위치한 대상지의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도시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도시경관 및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2) 이상석, “한국전쟁 메모리얼의 설계요소에 나타난 기념성”, 『한국조경학회지』 38(1): 12~24, 2010.4, p.11

3)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p.39, 문은미, “현대메모리얼의 개념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6, 2008, p.201 재인용

4) Wasserman, 1998, 전개서 p.11 재인용

1) 메모리얼 디자인과 상징성

메모리얼 디자인에서 상징성은 기억의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 또는 형태로 나타내는 성질을 가진다. 추모의 상징물은 사건의 사실과 상관없이 각자가 믿고자하는 것을 투사하고 이를 지속, 강화, 차단, 혹은 둔화 시키는 매개물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판적 관점도 있다. 그러나 복합적 의미를 가진 기억의 대상의 경우 본질적인 메모리얼 디자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나 시겔(Hanna Segal)은 상징성 형성이 성숙된 상태에서만 획득된다고 보았으며 “예술은 본질적으로 상징적 표현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했으며 예술의 존재가치와 치유기능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메모리얼의 형식적 한계에 불구하고 상징적 표현이 내포하는 예술적 가치와 이를 통한 사회적 치유기능이라는 역할의 실현에 주목하고자 한다.⁵⁾

2) 메모리얼 디자인과 공공성

메모리얼 디자인에 의해 형상화된 산물은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게 하는가에 관한 담론을 형성한다. 어떠한 사건이 개인의 스케일을 넘어 공공영역에서 일어난다면, 문화·정치적 담론과 이념의 문제로 확장된다. 대상을 기억하거나 기념할 목적으로 메모리얼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재현 방식과 매체로 재생산 하느냐에 따라 한 사건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상대성을 띄는 기억들을 어떤 가치체계를 토대로 엮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제임스 영(James E. Young)에 의해 분류된 “근대 이전의 기념비적 메모리얼”에서 메모리얼 디자인은 공공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왜곡의 수단으로 남용 되거나 이용되기도 했다.⁶⁾

5) Hanna Segal, *Dream, Phantasy and Art*, Routledge, 1990, 백영주, 기억의 형상: 메모리얼 디자인,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5, 2008, p.35 재인용

6) 문은미, “현대메모리얼의 개념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6, 2008, p.203

3) 메모리얼 디자인과 장소성

메모리얼 디자인과 장소성은 조성 부지의 장소적 역사성, 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메모리얼 디자인에서 본래 땅의 기억과 속성을 조경설계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것은 선행연구의 주요 주제였으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관점이다. 디자인 방법론에만 치중하게 되면 자칫 대상지의 장소적 맥락과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얼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기억하고자하는 사건과 메모리얼이 조성될 대상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지정된 부지와 메모리얼 대상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해야하며 둘째, 과거 랜드스케이프(Landscape)의 맥락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셋째, 변화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메모리얼 공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또한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는지 고려해야 한다.⁷⁾

2. 메모리얼 디자인의 변화

1) 기념비적 메모리얼 (Monumental Memorial)

과거 메모리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미국 워싱턴 모뉴먼트의 오벨리스크처럼 고대 그리스로부터 유래된 고전적인 건축의 원리와 이상적 형태를 따라왔다. 이는 구, 피라미드와 같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형태가 기념비성을 전달하는데 적합했기 때문이다. 근대 기념비 작업의 선구자는 블라미르 탈틴(Vladimir Tatli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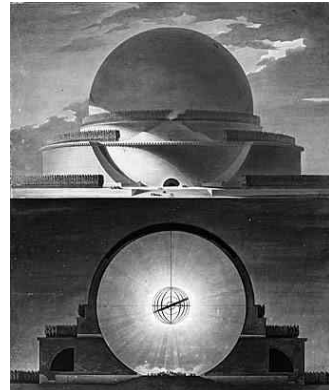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워싱턴 기념탑 (출처:Google images, Google maps)

7) 김석하, “대전차방어선의 메모리얼 트레일 계획”,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16-17

그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기술적 이성주의를 앞세워 유물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조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진보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조형물들이 빌딩, 정치 선전용 키오스트 등 근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업제품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과거 가치체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미래 산업사회의 역동적 이상향을 생산하길 원했다. 모뉴먼트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논쟁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활발했으며, 불레(Étienne-Louis Boullée)는 지름 약 150m의 구형 구조물로 우주적 질서를 표현한 뉴턴기념비 계획안(Cénotaphe à Newton, 1784-1785)을 선보였다. 근대 기념비적 메모리얼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계획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며 위압적이며 권위적 성향을 가진다.⁸⁾



〔그림 3〕 블라미르 탈틴의 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 1920
(출처:Google Images)



〔그림 4〕 불레의 뉴턴 기념비 계획안, 1784
(출처:Google Images)

2) 반기념비 메모리얼 (Anti-Monument Memorial)

반기념비 메모리얼은 기념비를 통해 과거를 보상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근대 기념비 메모리얼 방식을 거부하고 한 사건을 다각도의 성찰로 바라본다.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외부에 의해 의미가 구축된 기념비는 과시적으로

8) 김석하, “대전차방어선의 메모리얼 트레일 계획”,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18-20

표현 되기 쉽기 때문에, 기념비는 오히려 추모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했다.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물이 이상화되어 기념비가 될 때 그 기념비는 단지 찬미 되어야할 대상이 되면서 모순이 생긴다. 이러한 견해는 반기념비적 정서의 기반이며 매체나 형태보다 의미와 아이디어에 중심을 둬으로써 개념미술의 방법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념미술은 예술을 정신적 가치보다 상품적 가치로 평가하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때문에 특징인이 소유하기 어렵고 예술의 사회적 의미가 구축되는 과정을 관람자가 인식할 수 있는 퍼포먼스 및 설치미술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반메모리얼의 또한 방문자의 사고와 인식과정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적극적인 참여, 지식과 의식수준에 의존한다.



〔그림 5〕 9/11 메모리얼 조감도 (출처: 9/11메모리얼 공식홈페이지)

■ 9/11 메모리얼, 미국 뉴욕

2003년 미국 9/11 메모리얼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된 아라드와 워커(Michael Arad&Peter Walker)의 디자인 “부재를 성찰하며 (Reflection Absence)”는 파괴로 잃어버린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신 채워 넣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폭파된 무역센터 트윈타워의 접지면을 둘러싸는 경사로를 따라 경험하는 낙수공간은 폭파가 남긴 거대한 공백을 느끼게 한다. 두 개의 낙수공간은 각각 4,000m²에 달하는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공 폭포이다. 메모리얼 공간은 전반적으로 “Flat(편평한)”한 조경의 속성을 기반으로 주변의 수직적인 건축물과의 대비를 강조하였으며, 빛과 물, 소리를 매개로 그 조형성이 구축된다.⁹⁾

공원 내에는 역사·추모전시관이 설립되어 9.11참사의 역사와 테러가 지역 커뮤니티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역사·추모전시관은 3개의 전시실로 분류되는데 Historical Exhibition, Memorial Exhibition, West Chamber이 있다. 역사전시공간은 9.11참사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대비시켰으며 기념전시공간은 9.11참사 희생자 가족이 보내온 사진과 자료를 전시한 추모공간으로 조성되었다. West Chamber는 9.11테러를 견뎌낸 거대한 벽체가 서있는 공간으로 이 “마지막 기둥”의 뒤에는 방문자들이 남긴 기념의 흔적들로 꾸며졌다.¹⁰⁾



[그림 6] 9/11 메모리얼 전시관 조감도 (출처: 9/11메모리얼 공식홈페이지)

3) 역기념비 메모리얼 (Counter-Monument Memorial)

미학자 제임스 영(James E. Young)은 반기념비적 정서를 반영한 현대의 메모리얼 디자인 경향을 역기념비(Counter-Monument)라고 불렀으며 기념비의 논리 자

9) 김석하, “대전차방어선의 메모리얼 트레일 계획”,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21-22

10) 9.11 메모리얼 공식 홈페이지, www.911memorial.org (검색일:2012.3.14)

체에 도전하기 위해 형성된 기념 공간이라고 정의 한다. 그는 역기념비적 정서는 1차 세계대전 후 대두한 구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전체주의적 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의 선전도구로 이용된 기념물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다. 역기념비는 기념비의 설교적이고 지시적인 기능을 정치이념 선동 수단으로 이용했던 정치체제의 기념비의 형식 자체를 부정한다.



〔그림 7〕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 미국 워싱턴

■ 베트남 메모리얼, 미국 워싱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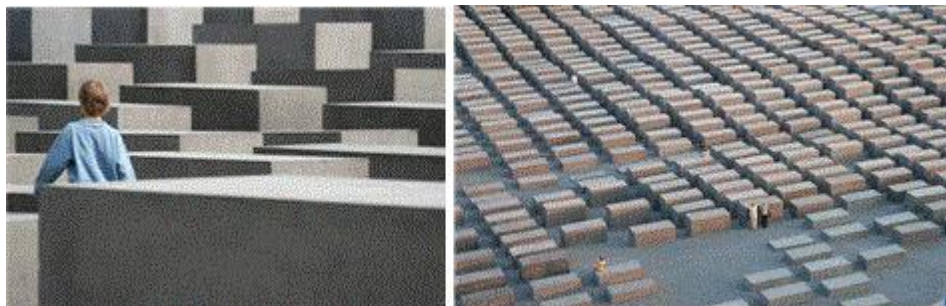
건축가 마야 린(Maya Lin)의 베트남 메모리얼은 이전 기념 건축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역기념비 메모리얼의 대표 사례이다. 린은 보상이나 위안 보다 오히려 아픈 상처와 기억을 들추어 내는 듯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낮은 경사로를 따라 두 개의 검은 화강석을 V자로 배치하여 관람자는 접근하면서 점점 깊이 지면으로 파고들어가다가 점차 다시 점차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검은 화강석의 벽에는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관람자는 과거 관습적 거대함에서 벗어나 손을 뻗어 벽을 만지고 수많은 전사자들의 이름 위로 투영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전사자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다.¹¹⁾

■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건축가 피터아이젠만(Peter Eisenman)의 베를린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도 역기념

11) 김석하, “대전차방어선의 메모리얼 트레일 계획”,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23-25

비 메모리얼의 사례로 2,711개의 콘크리트 석주들이 그리드패턴 안에서 높낮이의 변화로 물결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살해된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인의 죄의식이나 책임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듯이 메모리얼은 직접적인 설명이나 감성장치를 찾을 수 없다. 추상적인 형태와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이나 결의(Resolution)를 제시하기보다 과거의 기억과 향수(Nostalgia)에서 분리된 새로운 기념공간을 제시하고자 했다. 공간의 추상적 표상은 관람자로 하여금 개인마다 다른 해석을 또는 의문을 품게 하고 지하의 전시관에서는 투영된 희생자와 유가족의 이야기를 알리고 기념하고 있다.



[그림 8] 베를린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 (출처:Google Images)

전시는 1933-1945년 유대인학살의 연대표와 역사에 대한 정보로 시작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시기획의 컨셉이다. 4개의 전시실에서 개인 피해자의 기억의 단편들을 관람자들은 전체 사건을 기억하는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씩 인지하며 관람하게 된다.¹²⁾

■ 베를린 유대인기념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의 유대인기념관은 은빛 아연으로 도금된 지그재그식 외관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는 듯 불규칙한 창문만으로 시선이 집중된다. 관람객들은 복잡한 상징적 구조를 다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술적 감성 체험을 하게 된다. 설치작품은 “공감각적 예술체험”의 콘텐츠의 하나로 전쟁의 상흔과 공허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감성장치이다.

12) 유대인학살 추모공원 공식 홈페이지, www.stiftung-denkmal.de (검색일:2012.3.12.)



(그림 9) 유대인 기념관, 독일 베를린(Google Images)

■ 오클라호마시티 메모리얼

오클라호마 메모리얼은 1995년 4월19일 폭탄 테러사건의 희생자, 구조자 및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뚜렷한 기념물을 만드는 대신 3.3에이커의 공공 공간 및 명상공간으로 이루어져 방문자가 걸으면서 체험하는 도시 속 공원으로 계획되었다. 메모리얼의 중심공간은 각각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168개의 “빈 의자의 광장(Filed of Empty Chairs)”이다. 빈 의자는 희생자의 부재를 형상화한 것으로 고인의 된 가족을 존경하는 의미로 식당에 고인의 의자를 남겨 주는 미국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다. 부지의 북쪽에는 살아남은 나무(The Survivor Tree)라 불리는 폭파당시 잣더미 같았던 느티나무로 세월이 지나면서 무성해져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이 나무는 슬픔과 회복에 대한 치유의 메시지 흔적의 상징적 요소로 로고로 활용하기도 한다.¹³⁾



(그림 10) 오클라호마시티 메모리얼, 미국 오클라호마

13) 김석하, “대전차방어선의 메모리얼 트레일 계획”,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30-31

■ 미국 홀리코스트 메모리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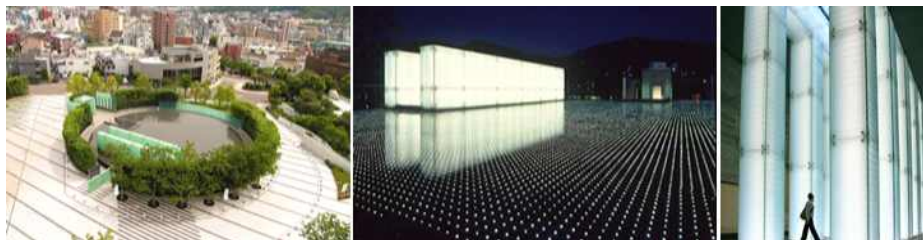
홀리코스트 박물관의 총감독이었던 웨인버그(Weinberg)는 이 공간이 역사와 단순 관련된 수집전시가 아니며 방문객들을 정신적, 감성적,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내러티브적인 박물관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방문객들은 설정한 스토리 라인의 연속적 흐름에 따라 이동하면서 인식의 과정을 일으키는데 이는 지적 경험 뿐 아니라 감성적 경험으로 몰입효과가 크다. 방문객들은 자신을 플롯 안에 투사함으로 그 시대의 느낌을 경험하는 동시 현재 시점에 있는 객관적 관점을 동시에 얻는다.



〔그림 11〕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 워싱턴

■ 나가사키 평화 기념관

공간의 중첩과 외부로부터 자연의 빛을 끌어들이 자연광을 이용한 감성표현 외에도 2000년대 광섬유와 LED같은 인공광과 디지털미디어 요소들이 메모리얼 공간에 있어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축가 아키라 큐류는 나가사키 평화기념관에서 12개의 빛의 기둥이 평화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는 “기억의 홀”이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이 기둥은 외부의 거대한 수공간과 이어지는데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7만개의 광섬유가 수면 위를 덮는다.¹⁴⁾



〔그림 12〕 나가사키 평화 기념관, 일본 나가사키

14) 우지연, 정회원,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공간의 가치와 디자인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2호, 2010, p.214

3. 메모리얼 디자인의 접근방법

근대 메모리얼은 기념하고자 하는 대상에 영원성과 초월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징적 표현이 장중하고 숭고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비적 메모리얼은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요구되었다. 현대 메모리얼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상호소통하며 과거와 대면해가는 과정¹⁵⁾을 만들어가는 매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즉, 기억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진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며 끊임없이 새롭게 규명하고 재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기억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관람자와 상호작용을 수용하는 현대 메모리얼의 사례들이다. 현대 메모리얼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예술가와 작품, 그리고 관람자 사이의 상호소통을 중재함으로써 기억 그 자체의 내적인 이미지를 전하고자 한다.¹⁶⁾

현대 메모리얼 디자인의 시대별 특징을 보면 1980년대 마야 린의 메모리얼에서 대중 관망적 입장에서 참여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획기적인 계기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대중인식과정을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는 전시매체 활용을 통한 내러티브적 접근, 오감체험,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및 흔적 보존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공간구조와 빛을 이용한 건축적 표현을 이용한 획기적인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건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의도와 대중의 이용행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추모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잃을 수 있었다. 9/11테러 이후에는 메모리얼 설계 및 진행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 졌으며 위로와 격려의 목적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공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확산되었다.¹⁷⁾

15)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p.78, 문은미, 현대메모리얼의 개념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2008 재인용, p.201

16) 전진성, p.379, 문은미, p.201재인용

17) 우지연, 정회원,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공간의 가치와 디자인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2호, 2010, p.214

[표 1] 메모리얼 접근방법의 구분 (출처:우지연, 정회원,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공간의 가치와 디자인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2호, 2010)

년도	메모리얼 사례	접근 방법						효과
		A	B	C	D	E	F	
1982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Washington D.C, USA		■	■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명상적 효과
1993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Washington D.C, USA		■					감성 디자인적 접근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확대. 참여적, 교육적 효과
1997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Oklahoma City, OK, USA	■	■	■	■	■	■	감성 디자인적 접근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확대. 참여적, 명상적 효과
2001	The Jewish Museum, Berlin, Germany		■			■	■	공간지각적 예술체험을 통한 감성 치유. 명상적, 참여적, 유희적 효과
2002	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 Nagasaki, Japan				■	■	■	공간지각적 예술체험을 통한 감성 치유. 명상적, 교육적 효과
2002	Berlin Holocaust Memorial, Berlin Germany						■	공간지각적 예술체험을 통한 감성 치유. 명상적 효과
2009	9/11 Memorial, New York, USA	■	■	■	■	■	■	다양한 치유공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명상적, 참여적, 교육적 효과

- **A 내러티브적 접근:** 설정한 스토리라인의 연속적 흐름에 따라 방문객의 인식과정을 유도함으로써 지적, 감성적 경험의 몰입효과가 큼
- **B 오감체험:** 시각적 체험공간 위주에서 청각, 촉각 등 다른 감각이 더해지면서 대중의 사건 이해 수준을 더욱 깊게 하며 감성적 동화도 커지게 된다.
- **C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관람객의 참여적 행위를 통해 전시 내용이 매번 변화하는 상호 활동적 디스플레이로 대중의 인기를 모으는 효과가 크다.
- **D 흔적의 보존:** 장소가 가지는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직접적 디자인 요소
- **E 빛의 활용:** 인공광 또는 자연 빛으로 공간적 예술체험을 극대화시켜줌
- **F 건축적 체험:** 건축공간을 통해 공간의 매스, 재료, 스케일, 조도, 소리의 자극 활용

현대 메모리얼은 방문자의 체험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과거와 대면하는 장소가 되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지 관람자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단서들과 그 기억을 찾고 지속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현대 메모리얼 디자인의 표현특성은 (1) 개별적인 기억의 가치를 강조하며, 관람객의 체험과 참여를 유도한다. (2)영웅보다 희생자, 전체보다 개개인, 집단적 역사보다 개별적 체험을 더 중요시한다. (3) 과거의 역사적 사건의 사실적 재현보다 희생자들의 부재를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역사 속 개인의 운명 그리고 방문자 개개인의 공감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방문자에게 집단적 체험뿐 아니라 사적 체험의 형성도 가능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과거 기억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기념 대상에 대한 설계자의 표현방법은 종종 가변적, 임시적, 유동적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¹⁸⁾

[표 2] 근대와 현대 메모리얼 표현특성의 비교 (자료출처:문은미, “현대메모리얼의 개념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6, 2008)

구분	근대 메모리얼	현대 메모리얼
기념대상	영원성, 지속성, 항구성	임시적, 순간적, 변화와 소멸의 개념이 더해짐
	영웅, 승리, 역사적 사건	희생자, 생존자, 개개인
	공동체 이상, 초월적 가치	희생자의 부재
공간의 형태와 규모	공적	공적↔사적
	절대적, 순수한 형태	부재의 상징표현
	사실적 재현	추상적 상징
	수직적	수평적
	거대스케일	휴먼스케일
	자기완결성, 강함	모호함, 약함
	고정적, 영구적	유동적, 임시적
관람자와의 관계	의식과 기념	체험과 참여
	집단적 체험	개별적 체험
	단일기억과 의미강요	관람자의 지적, 감성적 체험
	일방적, 주입식	상호작용, 참여와 개입

18) 문은미, “현대메모리얼의 개념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6, 2008, p.201

2절. 한국 천주교 순교성지의 이해

1. 한국 천주교 성지경관과 구성요소

우리나라 가톨릭 성지는 크게 순교성지와 교회 사적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의 91개 성지 중 순교성지가 54.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가톨릭 전래 시 유교사회의 충돌로 인해 박해와 맞물려 순교자가 많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지순례도 대부분 순교성지에 몰려있고 활발한 순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성지순례의 경우 우리 고유의 현세적이고 기본적인 종교심성에 따라 성지 자체의 역사성이나 장소가 갖는 중요성보다 마음에 평안을 얻거나 신앙 강화 차원에 의한 순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지경관에 있어서도 신심시설에 치우치는 면이 많다. 때문에 성지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교회사적 접근과 그에 따른 다양한 경관창출이 필요하다.¹⁹⁾

[표 3] 한국 성지경관 사례 분류

구분	기능	사례
대형 성지	종교센터	미리내 성지
중·소형 성지	묘소(순교자, 성인)조성	새남터성지
	가묘(의묘)형태로 유교적 효심과 결합한	서소문성지
	한국문화적 종교경관 나타남	절두산성지
교회사적지	신심행위 강조한 종교경관	남양성모성지

한국 성지경관의 대표적 구성요소는 십자가, 성모상, 십자가의 길, 성인상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교문화와 결합되어 토착화되면서 한국 가톨릭 성지경관을 형성했다. 한국 성지의 경관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가지지만 목적과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형성지의 경우 규모에 걸맞게 많은 조경·건물·시설·관광의 요소가 함께 혼재되어 있고 중·소형의 성지의 경우 대표적인 경관으

19) 이현삼, 한국 가톨릭 성지의 조성에 관한 해석: 서울대교구와 수원교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p.5

로 묘소(순교자, 성인)가 있는데 거의 가묘(의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유교적 효심과 결합한 한국문화에 적응한 종교경관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교회사적지의 경우 성지 고유의 경관보다 신심행위에 치중한 인위적 종교경관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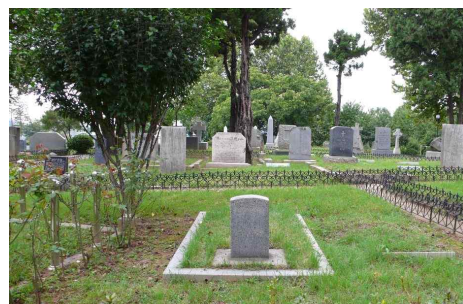
2. 한국 천주교 성지경관의 사례

1) 절두산 순교성지

한강 양화대교 부근에 위치한 절두산 성지는 절두산 순교 기념관, 건물 앞의 오픈스페이스, 양화진 성지공원 및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포함한다. 순교기념관은 본관, 부속건물인 성당, 종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의 2,3층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순교자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절두산 순교성지로서 그 의미를 더하게 하는 것은 성당 지하에 모셔져 있는 28명의 순교 성인 유해이다. 1966년 순교 기념관 건립 시 1866년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 11명 등 전국 곳곳에서 순교한 16명의 유해가 모셔졌다. 절두산 순교 기념관 앞뜰에는 모동산, 십자가의 길, 성모동굴 및 여러 기념비와 상징물들로 구성되어 방문자들은 산책로를 거닐면서 순교자들이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순교기념관 아래 언덕에 자리 잡은 성모동산은 이곳 분위기를 더욱 경건하게 만든다.²¹⁾



〔그림 13〕 절두산 순교 기념관



〔그림 14〕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20) 이현삼, 한국 가톨릭 성지의 구성에 관한 해석: 서울대교구와 수원교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p.6~7

21) 이선민, 한국의 성지-천주교편: 순교자들의 피가 강물이 되어, 샘터의 ‘한국의 성지’ 시리즈, pp.76-86

2) 새남터 순교성지

새남터 순교성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해 있으며 초기 천주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 등 많은 지도자급 인사들이 순교했던 곳으로 지금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지만 새남터는 원래 만초천이 한강변에 이르는 모래사장으로 중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로 쓰였다. 1950년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순교 장소로 추정되는 지역을 매입하여 순교기념지로 지정하여 1987년 전통적인 한식 기와집으로 새남터 순교기념 대성당을 지었다. 새남터 성당은 최근 국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순교성인 9명의 유해를 모셔온 데 이어 유해와 영정, 영대를 보여주는 ‘성해참배실’을 1층 소성당 오른쪽에 만들었다.²²⁾



[그림 15] 새남터 순교 기념지

3절. 서소문지역의 역사·문화 이해

1. 서소문 밖 형장과 천주교 박해

서소문 밖은 사형이 집행되었던 행형장이 위치하였는데 특히 조선은 개항 전까지 천주교 신자들을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 이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서소문을 통해 처형장으로 끌려가니 이른바 “순교자의 문”이라 불리었고, 그 처형장은 서소문 밖과 현재의 새남터 순교성지인 만조천변의 모래사장이었다.²³⁾ 서소문 밖

22) 이선민, 한국의 성지-천주교편: 순교자들의 피가 강물이 되어, 샘터의 ‘한국의 성지’ 시리즈, pp.52-61

23) (사)서울문화사학회 창립 25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조선시대 서울 한양도성 서

형장의 위치는 당시 상황을 묘사한 3개의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1) 김영자 역, 1994, 『서울 제2의 고향』에서는 “한국에서는 사람의 목을 자르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하다. 우리가 서울에서 임무를 마치고 같은 길로 귀국길에 올랐을 때 아침식사를 겸한 휴식 중에 치험한 것이다. 휴식처에서 50~60피트 떨어진 곳에 소총 세 자루를 맞대어 세워 놓은 것 같은 대나무 가지를 삼각형으로 세우고 거기에 피가 묻은 사람의 머리를 매달아 놓았는데, 이마에 붙인 종이쪽지에는 한자로 죄명을 방화범이라고 적어놓았다. 바로 우리가 나가는 성 밖의 길목이 처형장 이었다.” 라고 기록했다. 24)

(2) Von Hesse-Warteg E. 1985, Korea: Eine Sommerreise nach dem Lande der Morgenruhe 1894에서는 “형이 무거운 참수형이나 육시형의 경우 서소문 밖의 작은 공터에서 시행되는데, 그 근처에는 민가 몇 채가 있다. 형이 집행된 후 삼일간 잘린 머리카락이나 몸뚱이는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텅굴고 있어 이곳은 기분 좋은 장소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25)

(3) Bishop I. B. 1898, Korea and Her Neighbors에서는 “나는 북경행 대로의 가장 변화한 서소문 밖의 북적거리는 장터에서 위와 아래에 동학교도의 머리를 매단 캠프장 주전자 걸이와 같이 세 개의 장대로 만든 살풍경한 배열의 사형대를 목격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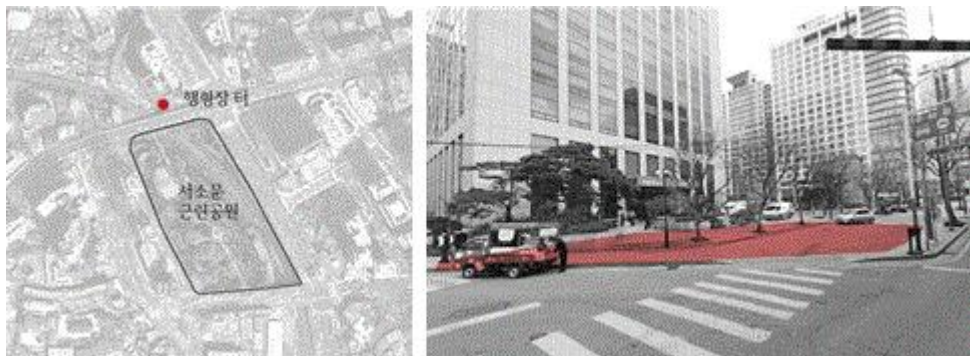
소문과 천주교 박해』 p.29, 이원명 발표자료

24) 김영자 역, 1994, 『서울 제2의 고향』, Mayet, P. 1902, Ein Besuch in Korea im Oktober 1883, 서울학 연구소, p.110

25) Von Hesse-Warteg E. 1985, Korea: Eine Sommerreise nach dem Lande der Morgenruhe 1894, Dresden und Leipzig: Verlag von Carl Reissner, p.59

26) Bishop I. B. 1898, Korea and Her Neighbors, Yonsei Univ. Press(Reprinted in 1970), p.39

위 김영자, Von Hesse-Warteg E., Bishop I. B. 의 기록을 통해 미루어 추정했을 때 행형장은 서소문 구룡의 사면과 만초천변 저지대의 접촉부에 해당한다. 이 지점은 서소문 네거리의 좌측 상단부에 위치한 임광빌딩의 남쪽 광장으로 서대문구 미군동 267번지에 해당한다.



[그림 16] 조선시대 서소문 밖 행형장 터의 위치와 전경

서울의 형장 중 서소문 밖 형장은 1416년(태종16) 이후 서울의 상징적인 형장으로, 참형이나 능지처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조선 후기에 서소문 밖 형장에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기록상 이곳에서 처형된 천주교인들의 수는 신유박해 순교자 31명, 기해박해 순교자 41명, 병인박해 순교자 12명 등 모두 84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 한국 103위 성인은 44명,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시복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20명,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시복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2명이다.

천주교 순교자에서 성인(聖人)이란 신앙과 덕행으로 신자들의 모범이 된 사람으로 교회가 교도권에 의해 선포하며 전 세계의 천주교 신자들이 그들을 공경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모진 박해를 거치며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 성인은 모두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다.²⁷⁾ 하느님의 종(라틴어: Servus

27) 이선민, 한국의 성지-천주교편: 순교자들의 피가 강물이 되어, 샘터의 ‘한국의 성지’ 시리즈, pp.64-65

Dei)은 교황과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하늘나라의 성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승인을 숙고하려고 선종한 신앙인의 일생과 업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다. 시성 절차의 네 단계 가운데 첫 단계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순교했다거나 덕행에 뛰어난 모범을 보였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가경자”가 된 후 시성성에서 가경자의 기적을 확인하고 시복됨과 더불어 “복자(여성형은 복녀)”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시성이 있는데 이것은 “성인”(여성형은 성녀)의 호칭으로 대치되는 것이다.²⁸⁾

서소문성지 천주교 순교자 수와 성명, 행형 등의 시기별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서소문성지 천주교 순교자 현황

구분	날짜(음)	사형자	행형
1801 신유박해 (총31명)	2월26일(6명)	◇이승훈, □최필공, □최창현, □정약중, □홍교만, □홍낙민	참수
	3월29일(2명)	이희영, 김백순	참수
	4월2일(6명)	□정철상, □최필제, 정익현, 이합규, □윤운해, □정복해	참수
	4월20일(1명)	김건순	참수
	5월22일(9명)	□강완숙, □최인철, □김현우, □이현, 홍정호, □김연이, □강경복, □한신애, □문영인	참수
	8월27일(2명)	□김종교, □홍필주	참수
	10월23일(2명)	황심, 김한빈	능지처사, 참수
	11월5일(3명)	◇황사영, 옥천희, □현계흠	능지처사, 참수
1839 기해박해 (총41명)	4월12일(9명)	○권득인, ○박아기, ○남명혁, ○이광현, ○박희순, ○이조이, ○김업이, ○한아기, ○김아기 ○이광렬, ○김장금, ○김노사,	참수
	6월10일(8명)	○원귀임, ○이매임, ○이영희, ○김성임, ○김누시아	참수
	7월27일(6명)	○박후재, ○박큰아기, ○권희, ○이정희, ○이연희, ○김효주	참수

28) 위키백과, wikipedia.org (검색일:2012.3.13)

구분	날짜(음)	사형자	행형
1839 기해박해 (총41명)	8월15일(2명)	○정하상, ○유진길	참수
	8월19일(9명)	○조신철, ○남이관, ○김제준, ○김유리대, ○전경협, ○박봉순, ○홍금주, ○허계임, ○김효임	참수
	11월24일(7명)	○최창흠, ○정정혜, ○이영덕, ○고순이, ○현경련, ○조증이, ○한영이	참수
1866~1 871 병인박해 (총12명)	1866.1.21(2명)	○남종삼, 홍봉주	참수
	1866.1.23(2명)	○전장운, ○최형	참수
	1868.윤4.7(3명)	이재의, 이신규, 권복	참수
	1868.6.26(2명)	조연승, 조낙승	참수
	1871.9	김창실, 김여강, 이돈호	참수

(○성인, □하느님의 종, ◇선정 대상자) 위 표는 (사)서울문화사학회 창립 25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조선시대 서울 한양도성 서소문과 천주교 박해』 p.47, 차기진과 이영춘의 연구 내용이다.



[그림 17] 성지별 순교성인 배출 수

순교성지 별로는 서소문성지가 4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에 새남터 11명, 당고개 9명, 전주의 숲정이 7명, 충청도의 갈매못 5명, 그 밖에 평양·대구·공주가 각각 1명씩이고 나머지는 서울의 감옥에서 옥사하거나 효수되었다. 서소문성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천주교 순교성지 중 가장 많은 성인이 탄생한 곳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신자인 이승훈(李承薰)과 최초의 신도조직인 명도회(明道會) 회장이었던 정약중(丁若鍾), 평신도 지도자이었던 최창현(崔昌顯), 최초의 여신도회장이었던 강완숙(姜完淑) 등이 처형되었다.²⁹⁾

29) 이선민, 한국의 성지-천주교편: 순교자들의 피가 강물이 되어, 샘터의 ‘한국의 성지’ 시리즈, 1997,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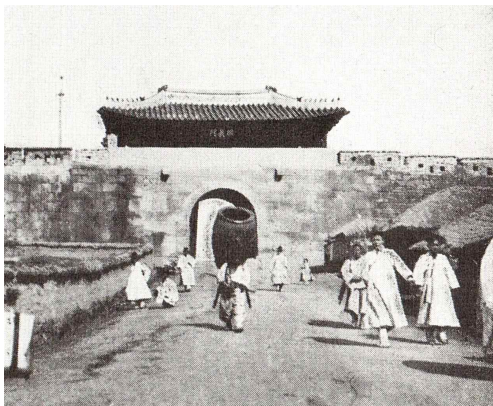
정약종(아우구스티노:1760~1801)의 형제는 자신을 포함하여 정약현(丁若鉉), 정약전(丁若銓), 정약중(丁若鍾), 정약용(丁若鏞) 네 명으로 이들 중 정약현을 제외한 세명이 천주교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삼형제는 천진암 강학회의 참석자였으며 서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열린 천주교 신앙집회에도 참가했다. 또한 이들의 누이들은 한국 천주교의 초기 지도자인 이벽(李穡), 이승훈(李承薰)과 결혼하여 정씨 집안의 아들과 사위들이 대부분 천주교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가장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정약종이었다. 명도회 회장으로 천주교를 전파하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한문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한글로 천주교의 주요 교리를 설명하는 <주교요지>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이후 천주교 교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성교전서>라는 책을 쓰다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여 완성하지 못하였다.

정약종의 둘째 아들 정하상(丁夏祥, 바오로:1795~1839)에 이르러서는 정씨 가문의 천주교 신앙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정약종의 맏형인 정철상(丁哲祥)이 순교한 뒤 20세에 정하상은 서울로 올라와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재건과 성직자 영입 운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1816년부터 아홉 차례나 중국 북경을 내왕하면서 한국 천주교의 상황을 전하고 사제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로마 교황에게 직접 청원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1831년 9월 조선교구가 설정되고 초대 교구장에 브뤼기에르 주교가 임명된 것은 이 같은 정하상의 노력이 낳은 결실이다.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인 앵베르 주교와 샤스탕, 모방 신부가 1836년과 1837년에 입국하자 전하상은 이들 밑에서 헌신적으로 전도활동을 벌여 조선인 최초의 신부가 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1839년 기해박해로 앵베르 주교 등이 체포되고 자신도 순교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순교하기 전 써놓은 <상재상서(上宰相書)>는 한국 천주교가 첫 번째로 배출한 체계적인 천주교 신앙 옹호서로 높이 평가된다.³⁰⁾ 특히 서소문밖 형장에서는 정약종과 그의 자녀인 정철상, 정하

상, 정정혜가 순교하고 정약종의 부인 유세실리아도 옥사하여 5인 가족 순교자 기념의 장소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³¹⁾

2. 서소문 성문과 경관의 변천

서소문은 1396년(태조5) 시작한 서울도성 축조(4대성, 4소문의 모습 갖추)때 함께 토성으로 지어졌으며 1422년(세종4)에 석성으로 개축하여 소덕문(昭德門)으로도 불리어 졌다. 서소문 문루는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으나 재정여건상 재건되지 못하다가 1719년(숙종45)에 누각을 설치한 후 현판을 걸도록 하는 건의와 논의가 있었다. 1738년(영조14)에 소덕문의 석문인 홍예문을 개축하고, 1744(영조20)에 금위영(禁衛營)이라 명하고 문루를 중건하여 이름을 소의문(昭義門)으로 개칭하였다.³²⁾ 1900년대 초 사진에는 서소문의 모습이 보이다가 1914년 경성부명세신지도에 서소문이 표기되지 않고 있다. 이는 1912년 일제가 시가지 가로망 정비 및 확장계획에 따라 부근의 성곽과 함께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 옛 서소문의 모습
(출처:고레아 에 고레아니 사진해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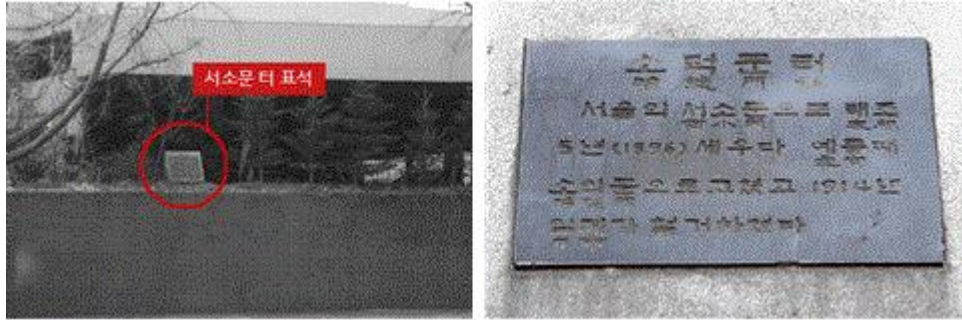
〔그림 19〕 김정호의 수선전도, 1840년대 (출처:네이버 미술정보)

30) 이선민, 한국의 성지-천주교편: 순교자들의 피가 강물이 되어, 샘터의 ‘한국의 성지’ 시리즈, 1997, pp.68-72

31) 같은 책, pp.66-70

32) 『영조실록』 권60, 20년 8월 4일, (사)서울문화사학회 창립 25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조선시대 서울 한양도성 서소문과 천주교 박해』 p.30 재인용

현재 서소문 터는 중앙일보 주차장 앞 높은 화단 안쪽에 표석으로만 남아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닿기 힘들며 성문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림 20〕 서소문 터 표석의 모습

서소문은 언덕배기에 자리하여 장방형 무사석(武砂石:네모지게 다듬은 큰 돌)으로 높게 육축(陸築:건물의 기초나 성곽의 지면위에 축조하는 일)하고 중앙에 홍예를 앞뒤로 설치하여 통로를 마련하고 그 위에 문루를 조성했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2칸의 단층 우진각지붕이며 문루 바깥 사방은 벽돌을 둘렀으며 좌우 측면에는 문루를 출입하는 협문을 설치했다. 성문 안쪽으로 빗물 배수를 위한 누조(漏槽: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든 구조물)를 전후 2개씩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³³⁾

서소문은 서대문과 남대문 사이 지금의 서소문동에 위치한 문으로 서남의 강화와 인천으로 직결되는 관문의 구실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광희문과 함께 시구문 역할을 하였고 서소문 밖에서 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서소문의 역할은 조선 초부터 조선말까지 변함없이 죽은 백성들을 넣은 관이 나가던 문이었고, 또 나라 죄인이 처형받기 위해 끌려 나가던 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외국인 비숍여사의 기록과 태종실록에도 나타난다.³⁴⁾

33) (사)서울문화사학회 창립 25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조선시대 서울 한양도성 서소문과 천주교 박해』 p.30, 이원명 발표자료

34) 같은 책, p.29

서소문과 만초천 사이의 네거리는 남대문에서 무악재를 넘어 평양·의주로 통하는 서로(의주대로)가 양화대로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15세기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서소문 밖에 성립된 취락이 서대문 밖과 동대문 밖은 물론 도성 내의 취락과 비교해서 규모면이나 기능상으로 손색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서소문 밖 취락발달은 17세기 말에 이루어진다. 서소문 밖 어물전이 1680년에 부설되고 1791년 시전상인들만의 특권 상행위를 비시전상인들에게도 허용한 정책인 신해통공(辛亥通共)이 발효되면서 상업취락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³⁵⁾ 18세기말을 전후하여 서소문 네거리 일대는 어물전, 상전, 초물전, 계란전 등이 들어서서 하나의 종합시장 다운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³⁶⁾ 이후 서소문 네거리에서 애오개로 가는 길의 만초천에는 속칭 험다리(圮橋)가 부설되었는데 이 다리는 교각위에 흙을 덮어 노면을 편편하게 하여 수레가 통할 수 있었고 서소문 신전으로 통하는 길이었으므로 통행자가 많았다. 험다리에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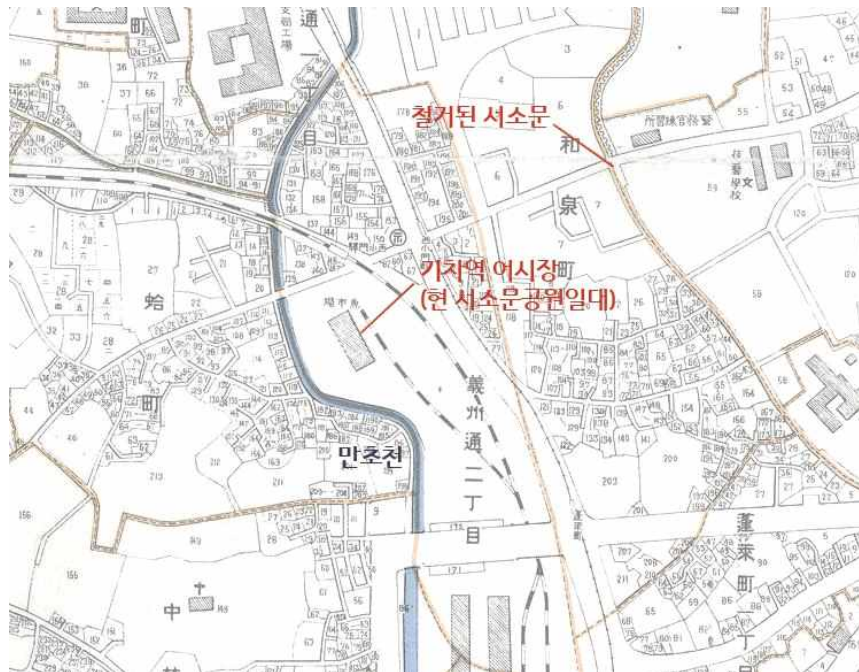


(그림 21) 19세기 서소문 네거리
(출처: 서울문화사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35) 『各廬記事』 地券, 乾隆 11년 11월, 같은 책 p.74 재인용

36) 『首善總圖』 (19세기 중엽 제작) 참조, 같은 책 p.75 재인용

여행객과 화물이 통과하였으므로 서소문 밖과 약현에서 만리재에 이르는 도로변에는 여행객의 숙박을 전문으로 하는 객주가 밀집하였다고 한다.³⁷⁾ 1896년 아관파천 후 고종이 경운궁(현 덕수궁)을 본궁으로 삼으면서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구미 각국의 공사관들이 경운궁 주위에 입지했고 외국인 거류민들도 대부분 서소문 안에 거주하게 됐다. 이들의 요청에 따라 조정은 서소문 일대의 가로 정비와 시설개수를 도모하게 된다.³⁸⁾ 그 후 일제 식민지시대에 들어서 1914년 시가지 가로망 정비·확장계획에 따라 도성의 성문과 성벽의 일부가 철거되었으며 1928년 서소문로와 의주로의 확장·개수에 착수하였다.³⁹⁾ 이로 인해 시장의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1970년 초까지 수산시장으로 기능해오다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이전해가면서 현 서소문공원이 1973년 11월 22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22〕 1930년대 서소문 네거리 (대경성정도 제5호,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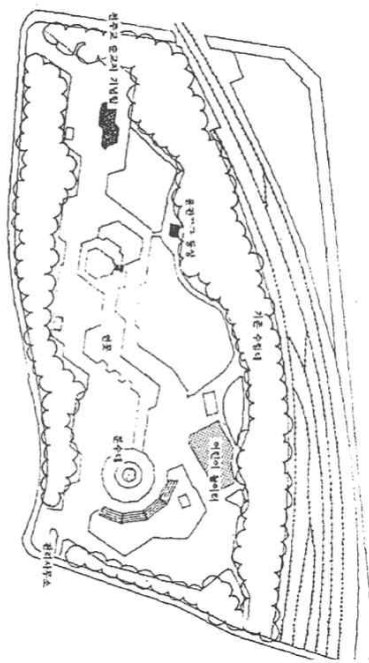
37) (사)서울문화사학회 창립 25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조선시대 서울 한양도성 서소문과 천주교 박해』 p.75, 최영준 발표자료

38) 김기호, 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서울학 연구』 6,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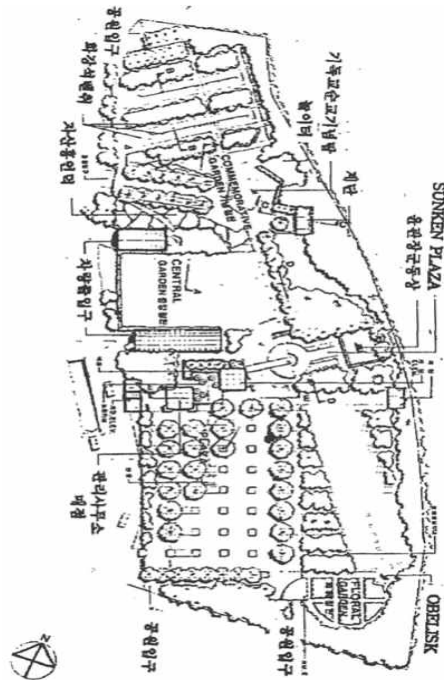
39) 같은 책, p.50

3. 서소문공원의 역사

서소문공원은 1976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초기 설계는 전반적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전자분수대-인공연못-구 천주교 순교자 기념비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윤관장군 동상,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었다. 공원의 경계면에는 전체적으로 조밀한 식재를 통해 외부와 격리된 공간을 만들었다.⁴⁰⁾



[그림 23] 서소문공원 최초 계획도
(출처:노윤경, 「서소문공원 리노베이션 설계」, 석사논문,2008)



[그림 24] 1992년 서소문공원 계획도
(출처:노윤경, 「서소문공원 리노베이션 설계」, 석사논문,2008)

구 순교 기념비는 세 개의 삼각형 석조물이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철거되어 약현성당으로 옮겨져 안치되어 있다. 1990년대부터는 서소문 공원은 지상 공간 뿐 아니라 지하도 입체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민간 지하주차장 건설에 착공하여 1997년 약 900여대의 자동차를 수용하

40) 노윤경, “서소문공원 리노베이션 설계“,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8, pp.49-52

는 공간이 개장되었고 1999년에는 국내 최초의 지하 쓰레기집하장이 이후에는 서소문 꽃 도매시장이 지하에 들어오게 된다. 지하 공간 시설조성과 함께 몇 차례의 상부 공원은 시설 보강 및 리모델링을 거치게 된다. 2009년 중구청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 탄성포장, 바닥분수 정비, 산책로 조명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5억 원을 들여 서소문공원을 새로 단장하였다. 서소문공원 북측에 인접한 서소문고가차도 경관개선사업도 진행되어 노후화, 도시미관 저해요소로 인식된 교량의 이미지를 개선하였다.



〔그림 25〕 서소문공원 리모델링 계획도(출처:박종일, 「서소문근린공원, 새 단장」, 『아시아경제』, 2009.4.17)



〔그림 26〕 서소문고가차도 공사 전·후의 모습 (출처:이용호, 「서소문고가차도 경관 개선사업 준공」, 도시기반시설본부, 2008.7.31.)

1990년대 말에는 경제위기로 실직자와 노숙자들이 몰리면서 공원에서 투숙하거나 빨래를 하는 등 공원을 무단 점유하기 시작한다. 한때는 실직자들을 위한 시설도 들어섰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실직자무료급식소 ‘아침을 여는 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다시서기 간이분소 등이 있다. 이후 서소문 공원은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실태여서 벤치를 모두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제3장. 대상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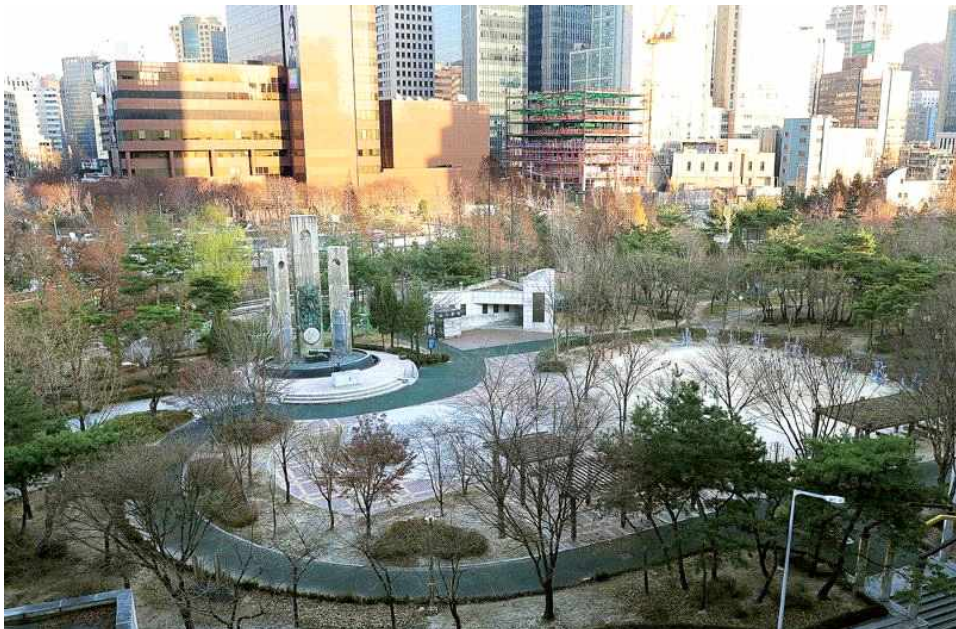
1절. 설계여건분석

1. 대상지 개요

- 이름: 서소문공원, 서소문근린공원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2가 16
- 면적: 17,340m²

[표 5] 대상지 시설의 구분

구 분	내 용
관리시설	관리시설 및 화장실 1개소
조경식재	소나무 외 45종 14,691주 잔디 10,535m ² 기타 그늘시렁, 환경조형물, 장미책, 분수대2개소
공원시설	의자 24개소, 연결형 벤치 44m, 족구장 및 운동시설
지하시설	지하주차장, 꽃 도매시장, 자원재활용 처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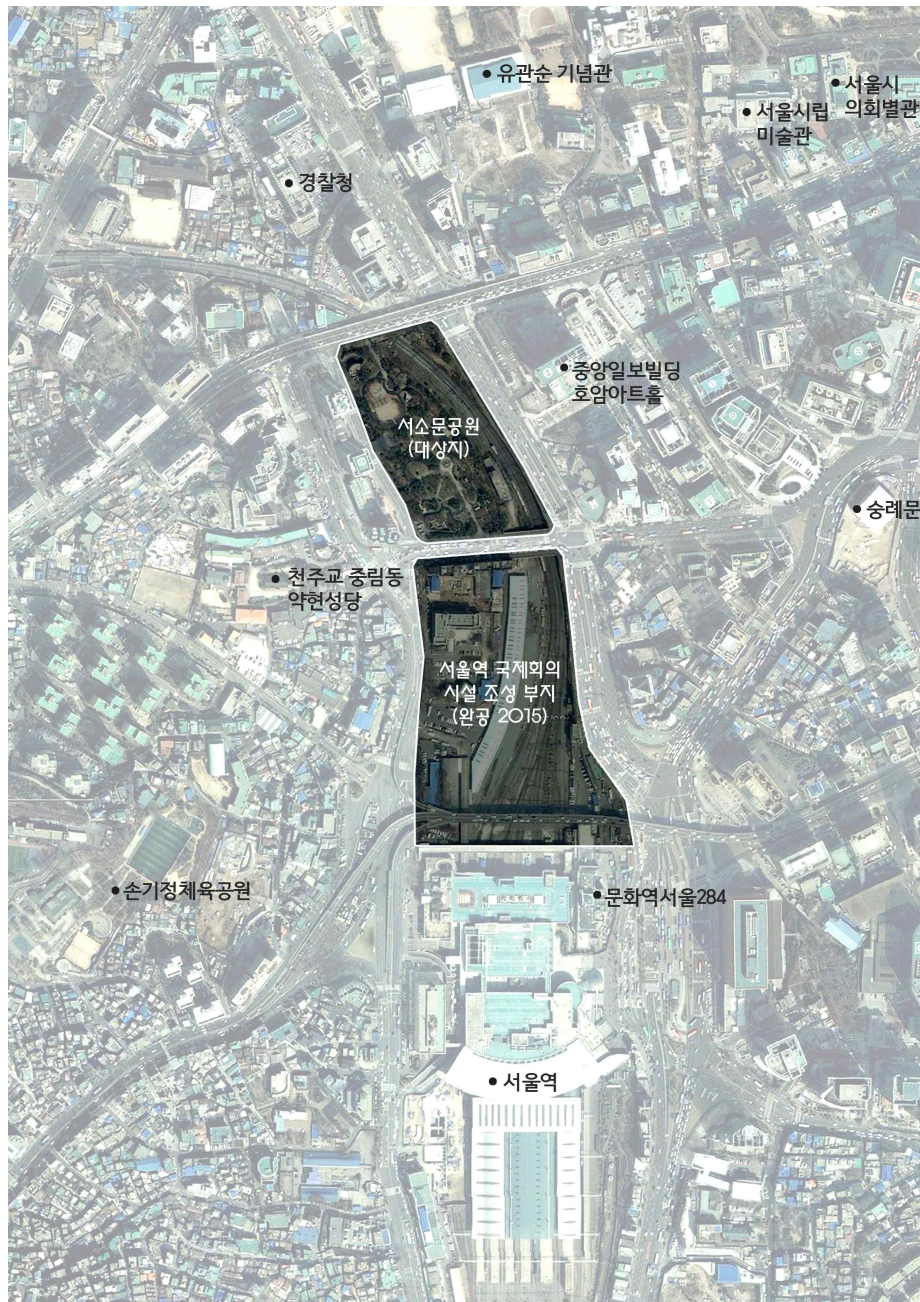


[그림 27] 서소문공원 전경

2. 대상지 분석

1) 주변현황의 종합분석

대상지는 서울의 중심지인 시청과 중림동의 주거 및 상업지역의 경계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역 국제회의시설(컨벤션센터)이 조성되는 부지의 북측에 인접해 있다. 공원의 서남측에는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건물인 약현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1) 건물 이용 현황

대상지 동측은 명동, 남대문시장과 이어지는 상업지역이 분포하고 있고 서측은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대상지 주변에는 유관순기념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아트홀, 문화역서울284 등 다양한 역사·문화시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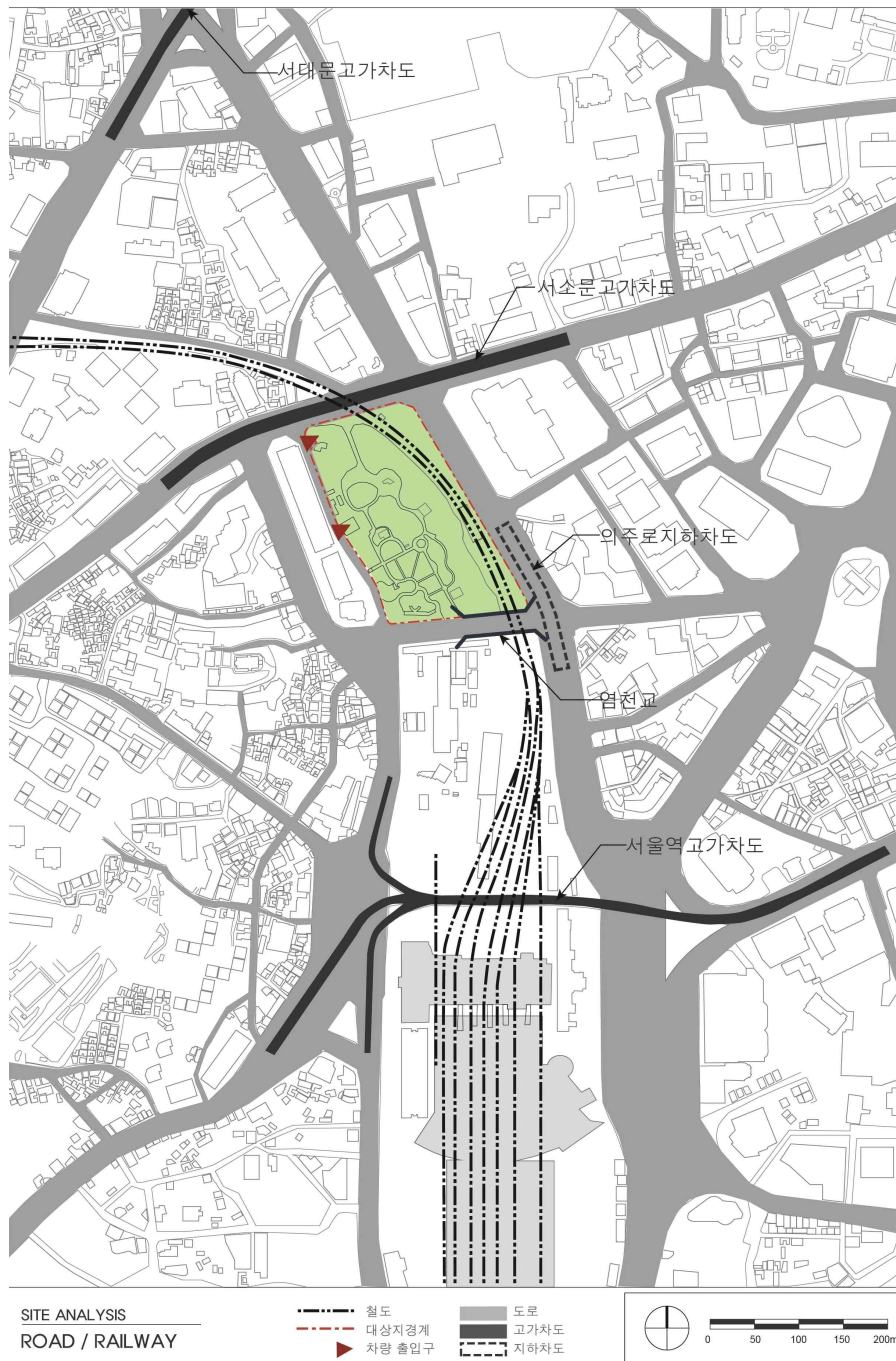
(2) 주변 녹지 현황

대상지 주변의 주요 녹지로 시청광장, 손기정 체육공원, 백범광장이 있으며, 주변 역사사적지로는 덕수궁과 숭례문이 있다. 대상지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는 숭례문방향으로 이어지는 서울 성곽이 부분적으로 복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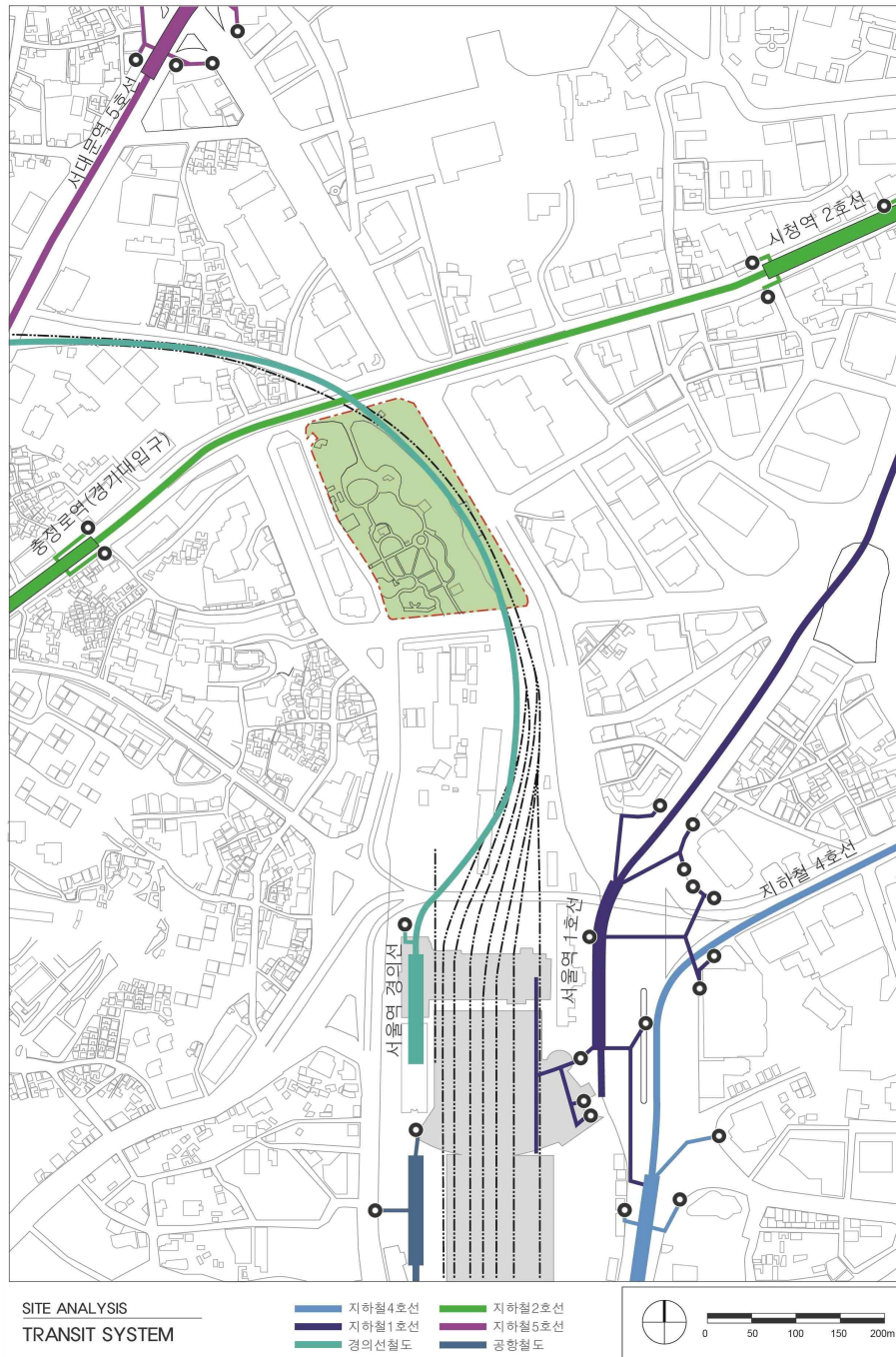
(3) 도로 및 철도 현황

대상지의 북측에는 서소문고가도로, 동측에는 의주로지하차도(염천교지하차도) 및 경의선 철도가 공원을 둘러싸고 지나가고 있다. 차량접근은 공원의 서측 2개의 입구를 통해 지하주차장, 자원재활용센터 및 꽃 도매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4) 대중교통 현황

대상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서울역, 지하철 2호선과 1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역 앞에는 버스 환승센터가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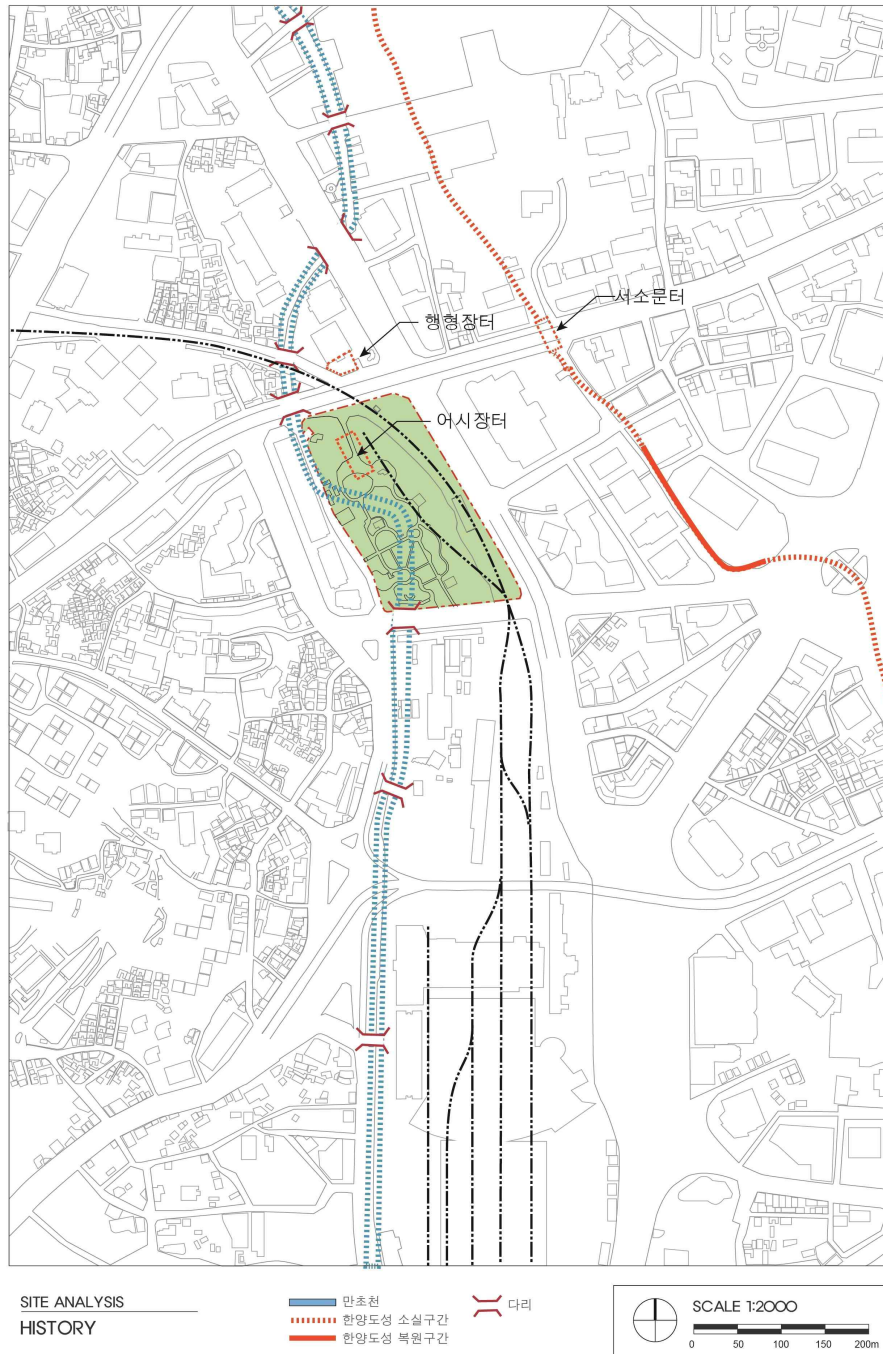
(5) 출입구와 보행동선

공원 출입구는 총5개이며 서대문역, 시청 방향에서는 북측 출입구로, 서울역 및 중림동 방향에서는 남측 출입구로 진입하는 보행자 동선을 가진다. 공원 지하 1,2,3,4층에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자가용을 통한 진입도 가능하다.



(6) 관련 사적지

역사적으로 대상지 동측에는 한양도성 및 서소문 성문이 위치했었으며, 대상지를 지나 남쪽으로 흘러 한강과 만나는 만초천이 있었다. 현재는 도로로 복개되어 하천의 흔적이 없으며 성곽의 흔적도 일부만 복원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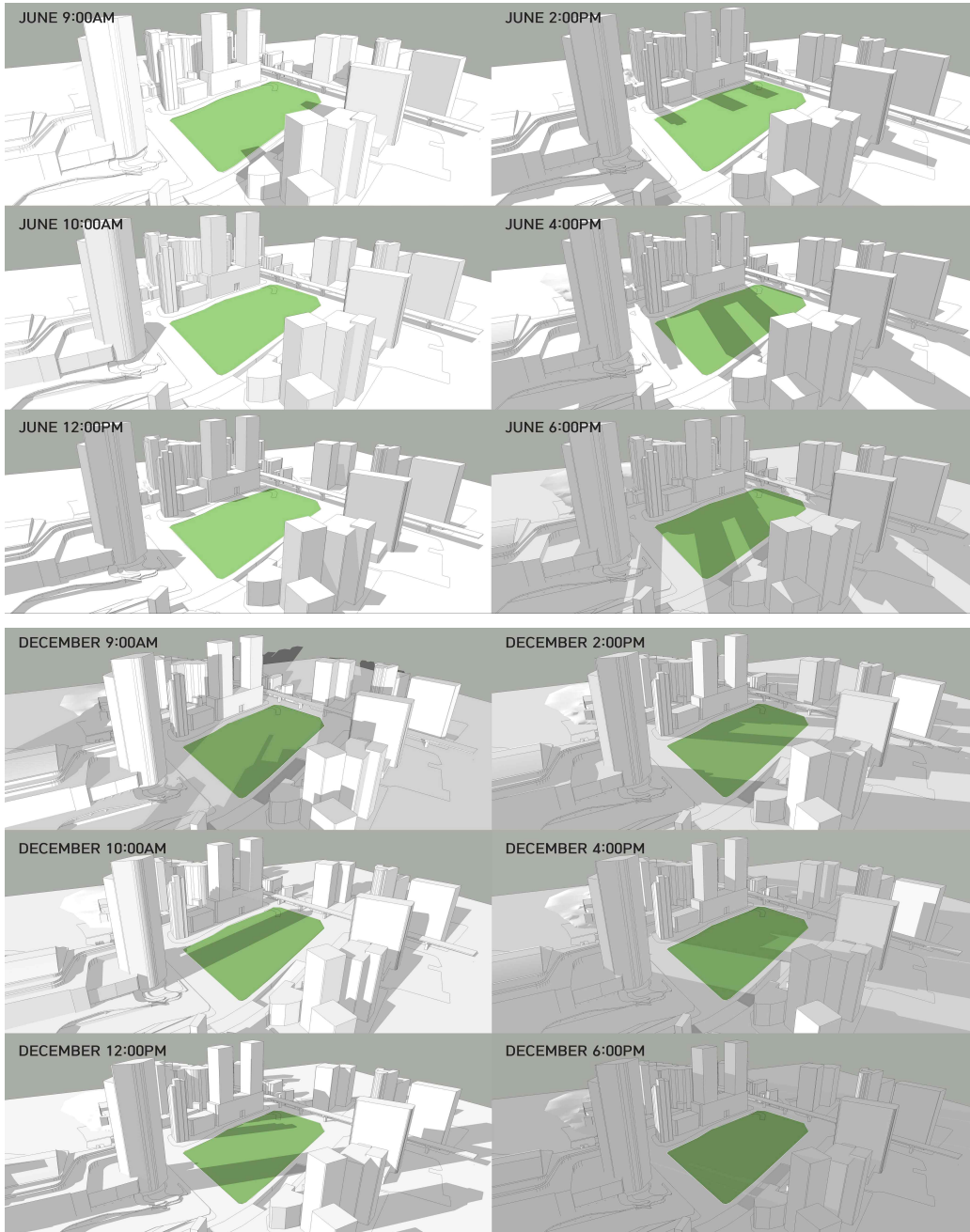
2) 진입 경관 분석

시청방향에서 공원으로 진입 시(1번) 고층 상업·업무 빌딩과 서소문고가차도, 경의선 철도에 의해 공원경관이 단절되어 있다. 공원의 서측(2,3번) 보도에서는 녹음 및 공원 내부의 경관이 보이지만 약 1m의 단에 의해 가로와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물 및 구조물이 가로에 접해있어 단절된 경관이 연속된다. 송례문방향에서 진입 시 염천교 사거리(5번)에서 전면 언덕위에 자리 잡은 약현성당의 경관이, 좌측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경관이 펼쳐져있다. 철도위로 지나가는 염천교를 지나 공원 남측(6번)에는 녹음과 쉼터가든으로 통하는 꽃시장 입구의 경관이 보인다.



3) 그림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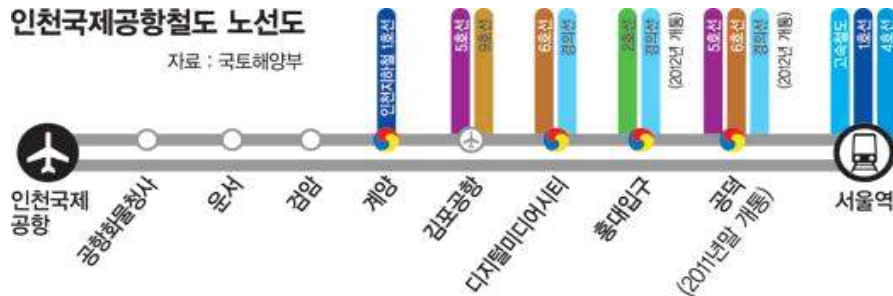
대상지 주변의 고층 빌딩 및 서울역 컨벤션센터 조성 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름과 겨울의 시간대별 그림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지 내부 일조량은 서측에 위치한 주상복합 빌딩(브라운스톤)과 앞으로 조성될 컨벤션센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4) 주변시설 및 건축현황

(1) 서울통합역사와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시 중구 봉래동과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기차역 및 지하철역으로 1900년 영업을 개시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경부선과 경부고속철도(KTX), 경의선의 시종착역이며,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이다. 2003년 12월 완공된 신축 역사에는 백화점이 입점하고 주변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는 등 여행과 쇼핑을 겸할 수 있는 복합역으로 조성되었다.⁴¹⁾ 2007년에는 인천공항과 이어지는 공항철도가 개통되었다.



〔그림 28〕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도 (출처:박소현, 「서울역~인천공항, 공항철도 2단계 구간」, 『파이낸셜뉴스』, 2010.11.3)

공항철도 직행열차를 이용하면 서울역에서 43분 만에 인천공항에 도달 할 수 있으며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는 탑승수속, 수하물 탁송, 출국심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출국 당일 언제든 탑승 수속과 수하물 탁송을 할 수 있는 “얼리 체크인(early check in)” 서비스를 통해 지방 여행객이나 출국을 앞둔 외국인 여행객들이 할가분하게 만나질 서울 도심 관광을 즐길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 입주해있으며 외국항공사의 입수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⁴²⁾ 또한 2013년까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항철도 서울역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지하로 직접 연결하는 환승 통로를 만들어 공항철도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을 단축할 계획이다.

41) 네이버 백과사전, 100.naver.com (검색일:2012.4.8.)

42) 이창호,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증가”, 인터넷한국일보, 2012.3.18.

(2) 약현성당(藥峴聖堂)

대상지에서 약 500m 거리에는 한국 최초 서양식 성당인 약현성당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건물로 사적 제252호로 지정되었다. 면적 1,309㎡로 길이 약 32m, 너비 12m의 십자형 평면 구조이며 비교적 소규모의 성당이다. 1892년 프랑스인 신부 코스트가 설계·감독하였으며 옆면 창은 처마 높이가 낮아 뽕족아치가 아닌 원형아치로 되어 있으나, 앞면의 출입구와 옆면 좌우로 돌출한 출입구 창 부분이 각기 뽕족아치를 이루어 고딕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회건축이라는 점과, 순수한 고딕양식은 아니지만 벽돌로 된 고딕성당으로 후세의 한국 교회건축의 모범이 되었다.



〔그림 29〕 약현성당 내
서소문순교자 기념관



〔그림 30〕 약현성당 내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

천주교 박해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를 낸 서소문 밖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 있다는 장소의 역사성으로 한국 천주교회사와 건축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약현성당 부지에는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과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이 위치하고 있다.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에는 교리서와 성서, 각종 신심서적 및 전례 예식서과 13위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은 1987년 차인현 주임신부 주관 아래 약현본당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설립하였으며 천주교 박해와 순교정신 서소문성지의 역사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⁴³⁾

43) 천주교 중립동 약현성당, www.yakhyeon.or.kr(검색일:2011.5.21.)

(3)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

서울역사는 현재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건축물 중 가장 뛰어난 외관을 갖고 있어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1925년 9월 30일에 서울역사가 준공되었는데, 도로면에서 볼 때 2층, 철로에서 볼 때 3층이다. 서울역사 역시 이 시기의 다른 역사들과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로써 부분적으로는 화강석을 사용하였는데, 시공은 조선호텔을 지은 아오미 하지메가 맡았다.⁴⁴⁾ 1984년 “국유자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민자 건설사업이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팽창에 따라 역 주변을 적극 개발되면서 역사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2011년 서울역사는 문화역서울284이라는 이름으로 준공 당시 모습으로 원형 복원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문화역서울284는 2012년 4월 2일 개관식을 열었으며 개관전 “오래된 미래”를 오는 6월 15일 까지 전시할 것이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무대이자 교통과 교류의 관문이었던 구 서울역을 원형 복원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창작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의 재구성이 문화·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옛 서울역의 사적 번호(284), 문화공간의 개념을 접목하여 탄생하게 되었다.⁴⁵⁾



[그림 31] 문화역서울284 전시관

(출처:이연주, 「문화역서울284‘오래된 미래’展」, 『머니투데이』, 201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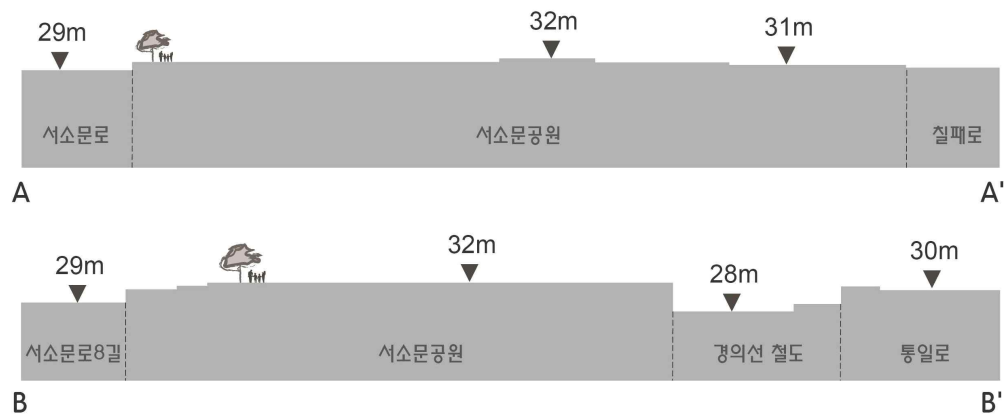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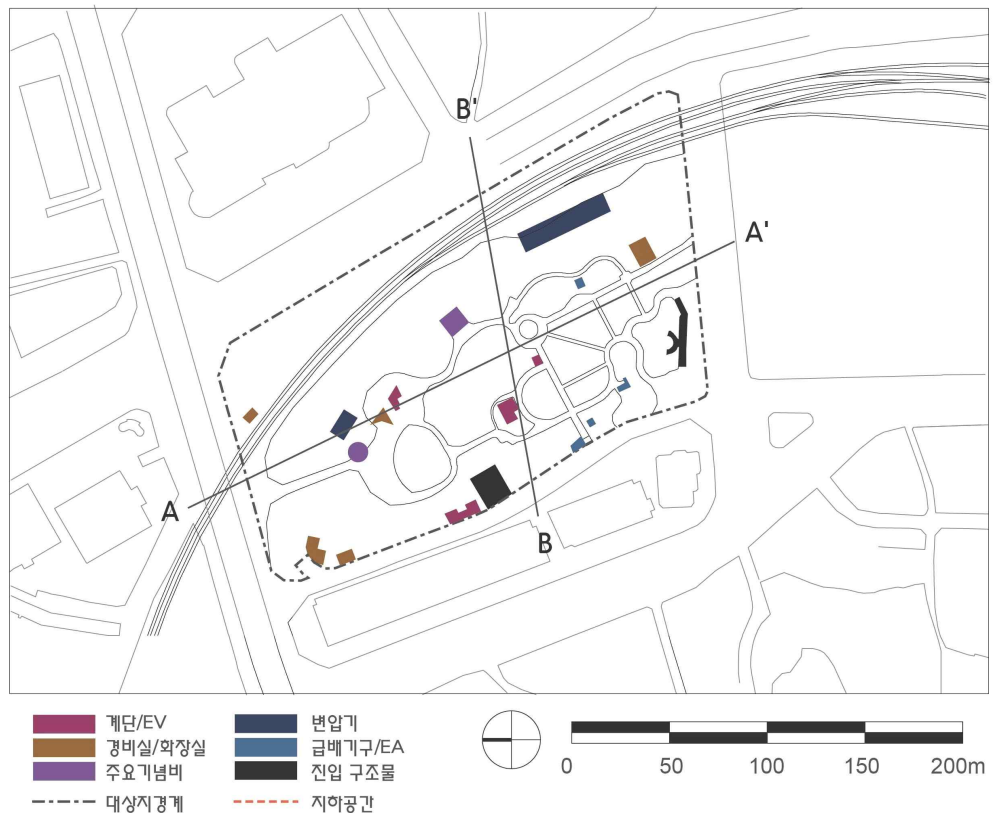
44) 네이버백과사전, 100.naver.com (검색일:2012.4.12.)

45) 문화역서울284 공식홈페이지, seoul284.org (검색일:2012.4.12.)

5) 대상지 내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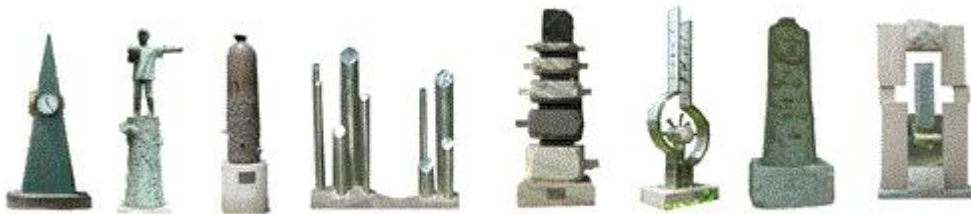
(1) 지상시설 현황

대상지 내에는 계단/EV, 급배기구 등 여러 구조물이 산재해 있다. 평균표고 약 32m로 거의 경사차가 없으나 남측으로는 철도가 염천교 밑을 지나가고 있다. 이 용객들은 지하에 차량주차 후 EV/계단을 통해 공원 내부로 직접 진입할 수 있다.



(2) 기념탑 및 환경조형물

공원 북측에 자리 잡은 현 순교자 기념탑은 본래 1984년 세워졌으나 1999년에 다시 건립되었다. 기념탑은 3개의 화강암 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탑 높이 15m, 좌우 대칭 탑 높이 13m이다. 3개의 탑은 박해와 죽음을 상징하는 칼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와 대비되도록 탑기단 위는 유리로 막아 물이 흐르도록 하여 생명을 상징하였다. 주 탑 앞에는 순교의 참상을 형상화한 청동조각을 설치하였으며 좌우 대칭 탑에는 순교자와 순교성인의 명단이 새겨져있다. 3개의 탑 가운데 새겨진 7개의 금빛 선은 죽음을 통한 하느님의 승리와 천주교 7대 성사(聖事)를 상징한다. 공원 내에는 1979년 설치된 윤관장군의 동상도 자리잡고 있으며 그 외 시계탑을 포함한 8개의 환경조형물이 공원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림 32] 공원 내 배치된 다양한 환경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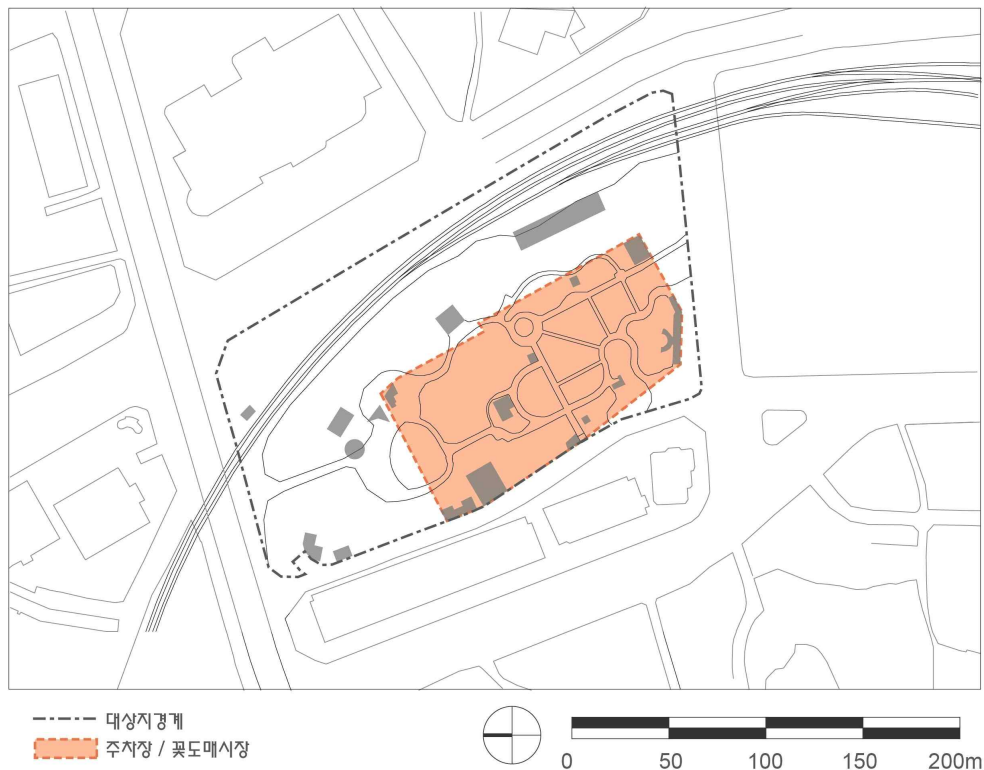
[그림 33] 공원 내 현 순교자 기념탑과 윤관장군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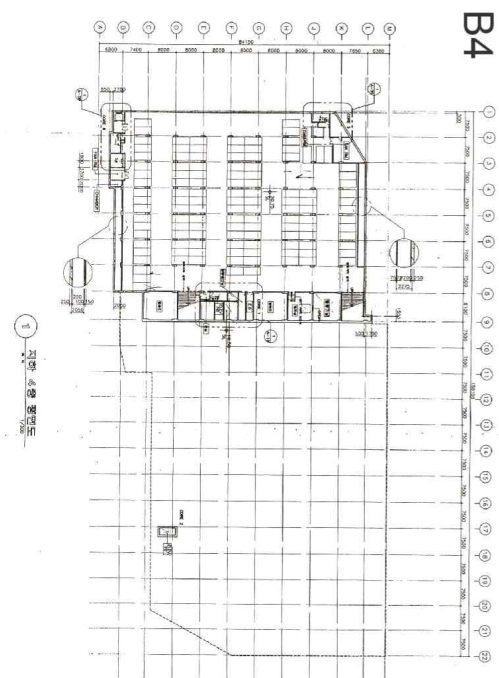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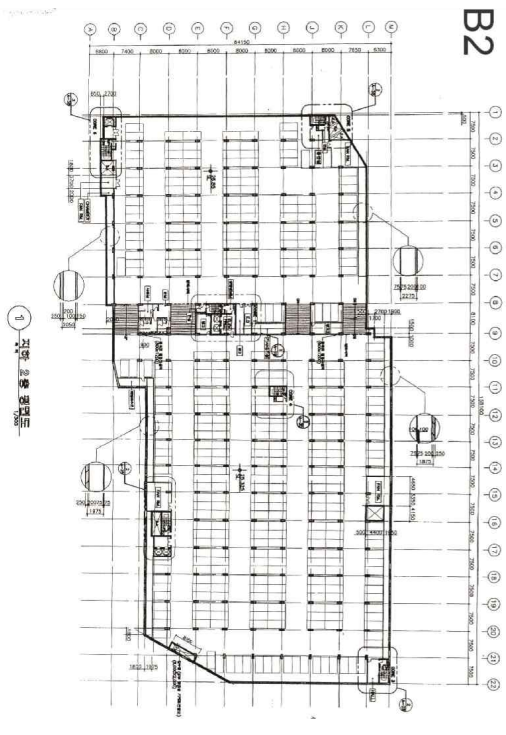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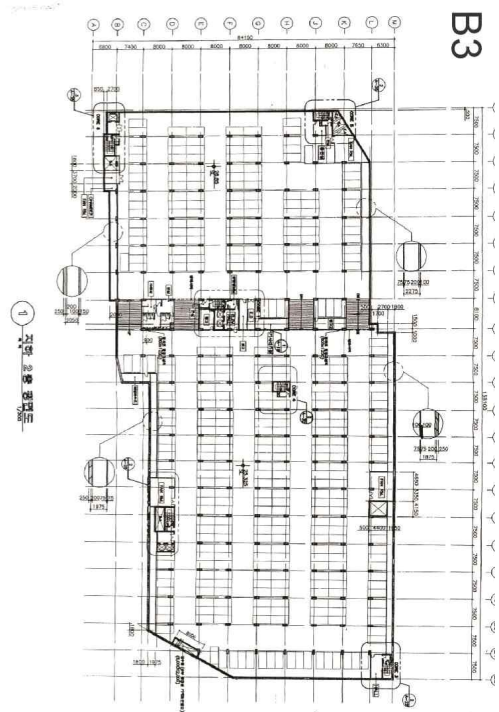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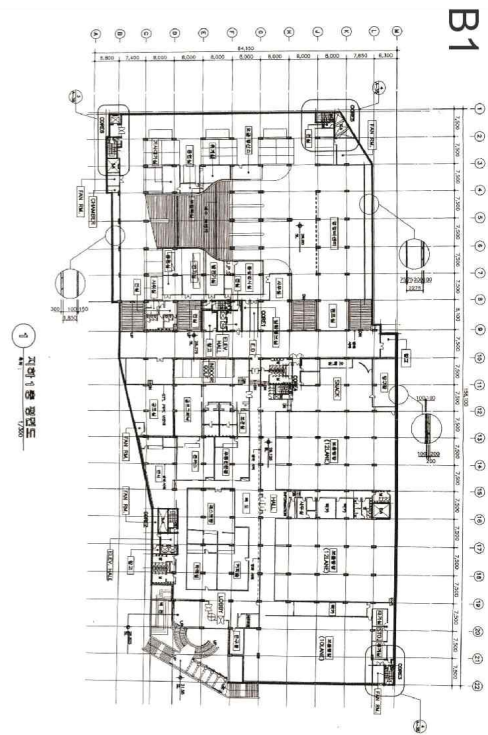
(3) 지하시설 현황

■ 지하주차장 및 꽃 도매시장

- 규모: 지하1~4층, 연면적 37,270m² (자동차 898대 수용가능)
- 조성시기: 1996년 12월 27일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은 중구청에서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이용가능하다. 차량입구는 부지 서측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의 공원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공원에 여러 곳 있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 서소문 꽃 도매시장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서측 코너의 썬큰가든 및 출입구를 통해 진입가능하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주변 회사원 및 주민들이 이용하며 지하에 있어 밖에서는 인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꽃시장에서는 생화 보다 조화 물품이 많이 조달되며 물품 집하는 지하1층 차량 출입구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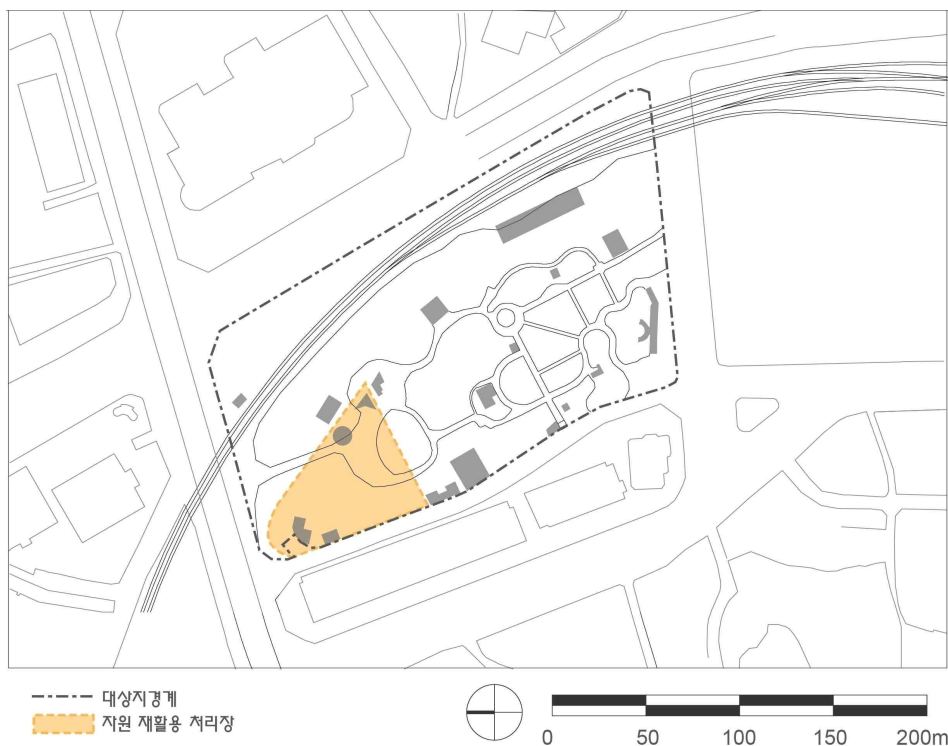


(그림 34)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및 꽃 도매시장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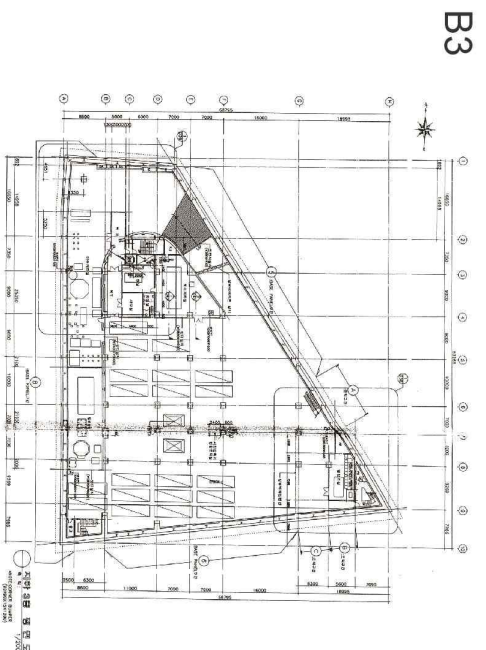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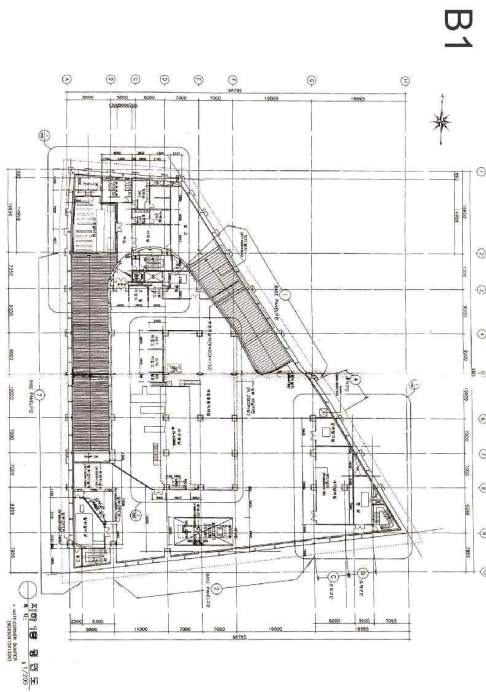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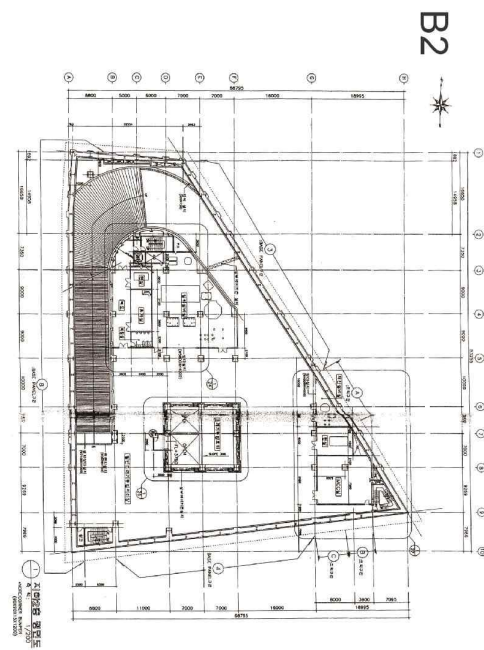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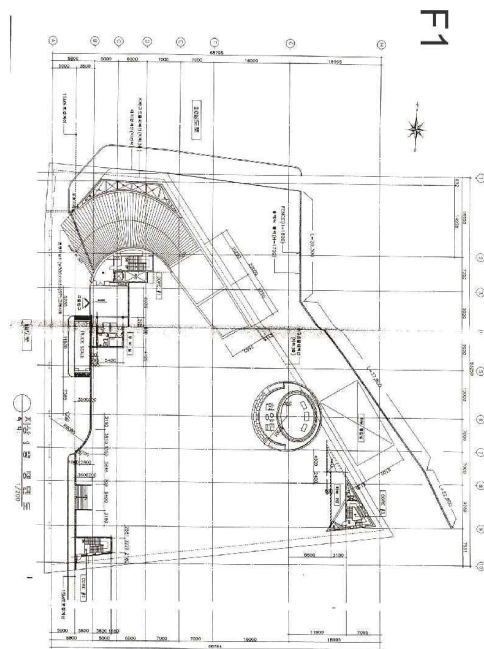
■ 중구 자원재활용 센터

- 규모: 지하1~3층, 연면적 11,708m²
- 조성시기: 1999년 5월 15일

중구 자원 재활용 센터는 우리나라 최초 지하 재활용 처리장으로 쓰레기 압축시설 450톤/일, 재활용처리시설 20톤/일 규모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지 내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대외적인 환경상의 민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21명의 현장인원과 공공근로 10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재활용처리장 견학 프로그램은 중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2005~2008년 54회에 걸쳐 2천500여명이 방문하여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과 자원이 재활용되는 모습을 견학하였다.⁴⁶⁾ 이곳에서 압축된 생활쓰레기는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수송되고 선별된 재활용 쓰레기는 선별장에서 압축 결속하거나 매입업체로 보내지고 있다.



46) NPN-TV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의 쓰레기 처리 과정 소개”, 뉴스와이어, 2008.6.5



(그림 35) 서소문공원 자원재활용센터 도면

3. 관련 계획

1) 서울역 국제 회의시설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조성계획」은 서울역 북부, 서소문 공원 남부에 인접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40층 높이의 대규모 컨벤션센터 및 업무시설, 호텔, 문화판매시설 등이 총31만7219m²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강남에 치중되어 있던 국제회의시설의 기능이 강북으로 오면서 서울역 및 서소문공원 일대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서울역사가 ‘문화역서울284’ 전시관이 오는 4월에 정식 출범하여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과 같은 기존 문화시설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국제교류단지 중앙에는 9층 규모의 대형 전시장과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최대 300석 규모의 회의장인 컨벤션센터(9만3878m²)가 들어서고 양 옆에 850실 규모의 27층 호텔(7만3890m²)과 40층짜리 업무시설(9만9381m²), 문화판매시설(5만68m²)등이 건설될 예정이다.⁴⁷⁾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KTX와 인천공항철도 등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 고용창출효과 뿐 아니라 서울의 브랜드 가치 상승, 도시 경쟁력 제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6〕 서울역 컨벤션 사업 계획 투시도 및 조성 (출처:이지현, 「서울역 인근에 고층 국제 회의시설 건립」, 『한국주택신문』, 2010.9.6.



〔그림 37〕 서울역 컨벤션 사업 조성 부지 (출처: 「서울 역 옆에 40층짜리 국제 회의시설 건립」, 『연합뉴스』, 20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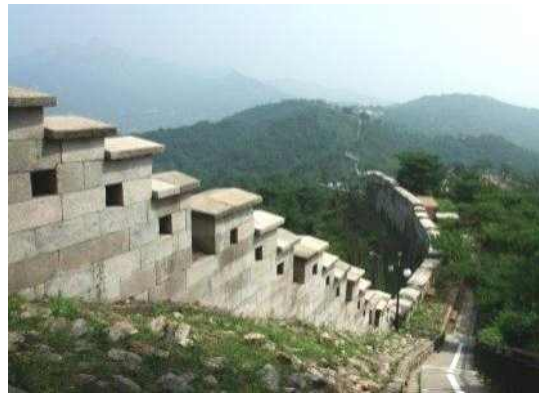
47) 이지현, “서울역 인근에 고층 국제 회의시설 건립”, 한국주택신문, 2010.9.6.

2) 서울 성곽길

서울한양도성의 역사적 전통성이 성곽의 의미를 넘어 도시구조와 함께 정치·문화·경제적 의미를 포함한 우리나라 역사의 상징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곽을 따라 산책을 하는 옛 순성코스가 조성되고 있다. ‘순성巡城’이란 조선시대에 봄과 여름철 성안 사람들이 짝을 지어 성 둘레를 따라 한 바퀴 돌면서 성 안팎의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다.



[그림 38] 성곽길 4개코스 (출처: 심동연, 「그 길 속 그 이야기」, 『중앙일보』, 2012.3.9.)



[그림 39] 서울 한양도성 (출처: 장운원, 「하루에 걷는 600년 역사의 도읍 서울」, 『독서신문』, 2011.8.11.)

성곽길 순성코스는 총 18.6km, 4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북악산과 인왕산은 산세가 험준한 편이지만 데크를 설치해 걷기가 수월하고 현재 인왕산 코스는 성곽 정비공사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어 우회해야 한다. 북악산코스는 본래 군사통제 지역이었던 곳을 개방하여 신분증을 제출해야만 걸을 수 있다. 낙산과 남산 코스는 길이 완만해 누구든 쉽게 걸을 수 있다. 각 코스는 3~4시간 정도 걸리며 서울시 문화관광 홈페이지(dobo.visitseoul.net)를 통해 예약하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서소문(西小門)터도 성곽길과 주변 문화·역사 탐방길과 대상지의 적극적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절. 이용현황

1. 종교 활동현황

서소문 성지 순례를 위한 방문은 개인 또는 지역성당단체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서소문 성지순례 코스와 서울 성지순례 코스로 구분 할 수 있다. 순례자들은 순교 현양탑 앞에서 참배식 및 기도의 시간을 가지다가 주변 벤치와 정자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담소를 나누는 단체활동을 하기도 한다. 현재 약현성당의 서소문순교성지 전시관 운영자는 1명이며 전시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전화예약을 통해 소규모 단위의 단체 대상의 전시설명이 가능하다.

■서소문 성지순례 코스 (2시간 소요)

서소문공원 ▶서소문 순교자 기념성당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 ▶약현성당 ▶십자가의 길

■서울 성지순례 코스 (하루 소요)

명동성당 ▶서소문성지(대상지) ▶약현성당 ▶당고개성지 ▶새남터성지 ▶절두산성지



[그림 40] 서울 성지순례 코스 및 참배식 전경

서소문 공원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순교현양탑 앞에서 서소문 순교자 현양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사는 기도, 독서, 복음, 보편지향기도, 성가의 순서로 진행되며 미사에 필요한 텐트, 의자, 테이블 및 이동건반과 스피커를 위한 전선은 주변 보관창고에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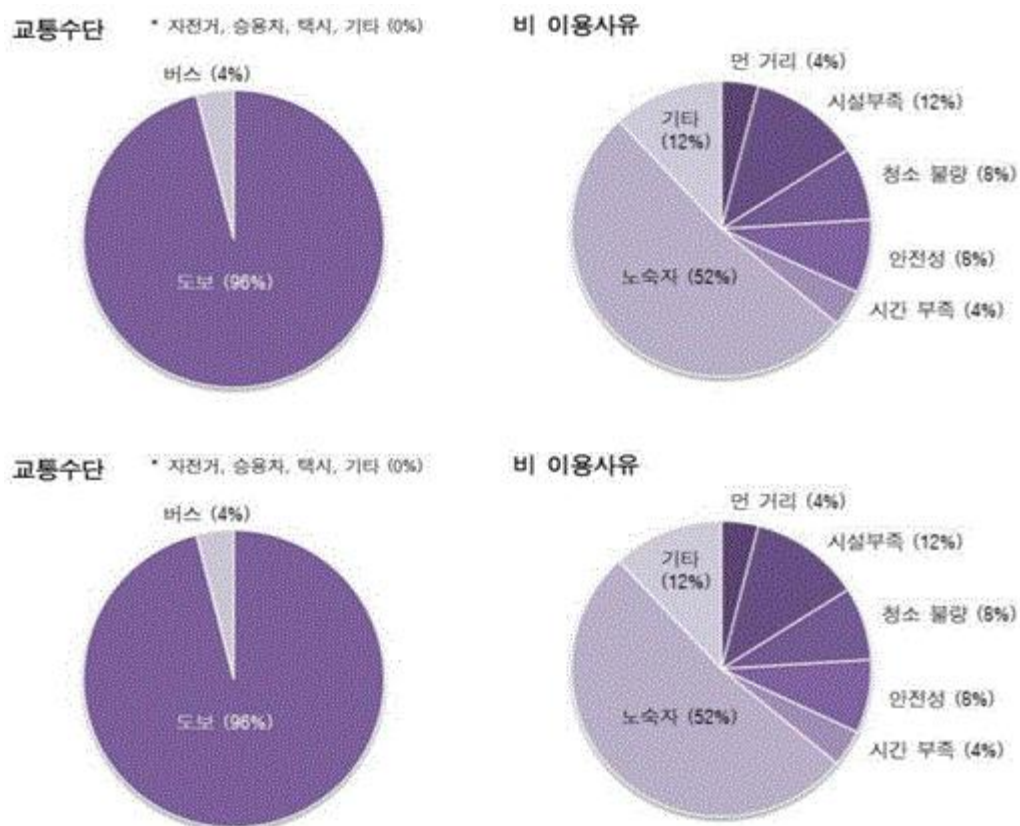
〔그림 41〕 서소문 순교자 현양 미사 전경

2. 공원이용 및 관리현황

서소문공원 이용자는 인근 상업·업무시설의 근무자 및 지역주민, 꽃시장 상인, 순교성지 방문자 및 천주교 신자 등이 있다. 회사원들이 점심식사 후 산책을 즐기는 모습, 지역주민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모습도 관찰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프레이저 플레이스 등과 같은 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외국인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노숙자들이 공원을 점거하고 벤치 및 화단에서 노숙하여 공원 이용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공원 관리자 인터뷰를 통해서 공원 이용현황과 실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평일근무는 9:00-18:00이며 주말에는 소장1명, 관리인2명이 교대근무를 통해 의주로공원 등 어린이공원 2

개소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카톨릭 단체에서 공원 내 무료급식을 장기간 진행해 왔으나 민원으로 중단된 상태 이다. 여름철에는 하루 저녁에 60여명의 노숙자가 공원을 점거하기도 하며 화단 안쪽으로 노숙자들이 신문을 깔고 잠을 자서 광장 쪽 울타리 높이를 높이고 기존에 있던 벤치 30여개를 치운 상태이다. 움직이기 힘든 무거운 돌 벤치였으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여 어려움에도 이동시켰다.

공원 이용자의 이용목적, 이용시간, 교통수단 및 비사용 이유는 기존 이용자 설문조사 자료를 참조하였다. 공원의 주요 이용 목적은 산책, 휴식 및 운동이며 주요 이용시간은 오후2~5시, 도보로 접근하는 이용자가 90%이상이다. 이용을 꺼리는 이유로 노숙자 문제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2〕 서소문공원 이용자 설문조사 (출처:이재정, “용도지역별 생활권공원의 이용실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3절. 소결

1. 문제점과 잠재력

대상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서소문공원의 문제점과 잠재력은 다음과 같다.

문 제 점	<p>장소 정체성의 부재</p> <p>다양한 기능과 시설 및 조형물이 혼재되어 있어 뚜렷한 장소로서 인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역 그리고 시청과 같은 도시 중심지와 인접한 입지적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p>
	<p>열악한 접근성 문제</p> <p>서소문고가도로, 의주로 지하차도 및 경의선 철도가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어 보행자의 시각적,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시청 방향에서 접근할 때 경의선 철도에 의해 보행자의 시각적 물리적 접근이 모두 차단되어 있어 공원이 있는 것을 인지하기 쉽지 않다.</p>
	<p>운영·관리의 미흡</p> <p>기본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운영 및 관리만 되고 있어 다양한 문화·종교·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통해 운영·관리를 체계화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p>
잠 재 력	<p>외국인 이용자의 증가</p> <p>최근 프레이저 플레이스 호텔 등 주변 숙박시설의 증가로 외국인들의 공원 이용의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역 공항터미널 개장 및 공항철도 운행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편리해진 교통과 향후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조성을 고려했을 때 국제적인 도시공원으로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p>
	<p>서울역 주변계획과 개발 활성화</p> <p>서울역 국제회의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가 문화·예술시설 및 상업·업무시설의 거점으로 거듭나면서 서소문공원의 위상이 현격히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공원 내부로 끌어들이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p>
	<p>도시여가 및 걷기문화 확산</p> <p>현대도시는 인구의 집중화, 기능의 집적화가 진행되면서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과 공공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걷기문화의 확산으로 역사문화벨트 활용증대가 기대된다.</p>

2. 설계 이슈

서소문공원의 현황분석과 문제점과 잠재력 도출을 기반으로 설계 기본구상 및 디자인프로세스에서 고려해야할 이슈들을 아래와 같다.

· 역사성과 일상성

천주교 순교성지라는 종교 역사와 기억을 담을 필요성도 있지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단일한 성격의 기념공간이 되는 것은 장소 활용 측면이나, 입지적 조건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즉, 도시생활의 일상성과 장소의 역사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울역 컨벤션센터 조성으로 주변지역이 중심 문화·상업지역으로 거듭날 것을 고려했을 때 서소문공원은 서울의 도시경관 이미지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외국인 및 방문자들에게 한국 고유의 문화·역사성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공간인 동시 지역주민과 직장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휴식을 취하고 녹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독립적 개발과 주변연계를 통한 개발

현재 서소문공원 주변은 개발의 압력을 받는 지역으로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및 경의선 철도 지하화, 의주로 지하차도 폐쇄 등의 도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시 계획적으로 지정된 서소문공원 부지 안에서의 현실적 리노베이션 계획을 제안하는 동시 단기적, 장기적 주변 도시환경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고 서울역 국제회의시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통합적 계획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경의선철도에 의해 단절된 열악한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행로와 같은 인프라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공원 지향적 / 광장 지향적

서소문공원은 다양한 문화·사회·종교·교육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 지향적 공간도 필요한 반면 도심 녹지로서의 역할도 충족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존 공원 내의 야외미사 활동 및 지하 꽃시장의 상업 활동을 고려한 광장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높은 건물 및 철도로 위요된 입지적 특징과 현재 공원 내의 노숙자 문제를 고려하여 식재에 있어서 범죄방지용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 공공성과 상업성

서소문공원의 공공성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개방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복합적 용도로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공적 편의 제공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즉,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의해 형성되는 공공성을 추구하고, 사적 영역과 구분된 이원론적 경계의 틀에서 벗어나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경계를 가져야 한다. 서울역 컨벤션 센터와 연결된 지하 상업 공간 조성 및 공원 내 소규모 상업시설 설치를 통해 공원에 활기를 되찾고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화 된 설계를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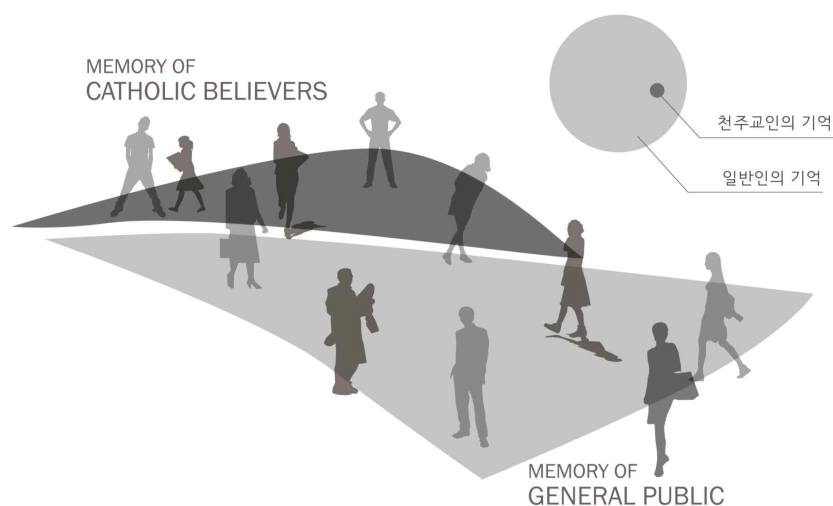
제4장. 기본구상

1절. 설계개념과 기본방향

1. 설계개념

이원의 기억과 기억을 통한 치유

방대한 역사 스펙트럼에서 서소문공원은 천주교박해라는 특정사건에 의해 “한국 최대 천주교 순교성지”라는 강한 장소적 정체성이 부여되었다. 서소문공원의 장소는 천주교인들에게는 신성한 곳으로 순례 목적지의 의미를 가지나 일반인들에게는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원의 기억으로 개인의 심상에 남아 있기도 하다. 때문에 서소문공원은 천주교인만을 위한 순교성지가 아닌 모든 시민의 기억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즉, “이원의 기억”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종교를 기반으로 한 기억과 도시를 기반으로 한 기억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두 개의 기억은 종교 활동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와 도시일상생활을 오픈스페이스로 구현될 것이며 서로 대치되는 형상의 공간이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는 공간이 될 것이다.



본 설계에서는 특정 종교의 영원성과 초월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이 상호소통하면서 과거와 대면해가는 과정을 체험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메모리얼 공원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기둥이라는 추상적 상징요소를 통해 지상 광장에서는 “기억의 흔적”으로 방문자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하 메모리얼에서는 완결된 건축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지하 메모리얼은 성당의 평면 구조를 기반으로 하나 본래 제단이 있는 위치에 곳에 치유정원을 조성함으로써 특정 종교인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두를 위해 열린 공간으로서 자연을 통해 기억을 승화시키고 심신을 정화하는 신성한 공간이다. 여기서 기둥은 기억의 매체로서 역할을 하지만 특정 기억을 촉진시키기보다 관람자가 스스로 의미를 해석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천주교 집단적 주체의 역사가 약화되고 개개인의 감성적 기억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즉, 본 설계는 기억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카운터메모리얼(counter-memorial)의 성격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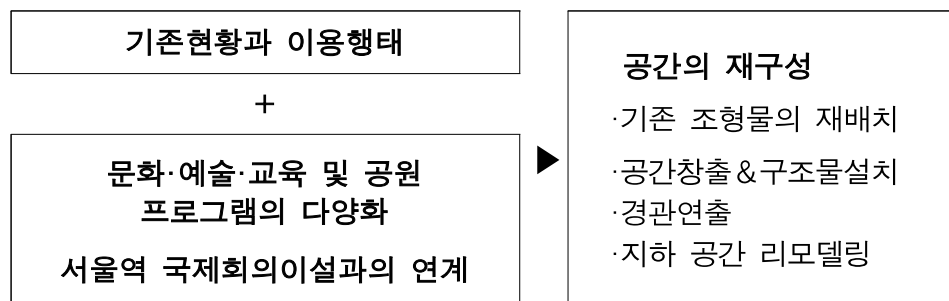
역사변화 과정에서 서소문공원 부지는 한양도성 밖 만초천변, 어시장, 형장, 철도 하역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다. 현재 공원 안에도 다양한 시설과 조형물들이 복합화 되어 있어 서로 다른 시간의 공간과 기억의 흔적들이 중첩되어 있다. 본 설계는 현재 대상지 안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과 조형물 요소들을 활용하여 역사층위의 전개(Reveal and Conceal)를 통한 전체 공간 내러티브를 형성하

고자 한다. 특히 기존 공간을 재창조,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억의 유동성을 수용하는 메모리얼 디자인을 계획하고자 한다. 이는 역 기념비 메모리얼(Counter Memorial)의 기본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디자인의 매체를 통해 기억을 촉진시키거나 감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기억만을 강요하기보다 관람자가 스스로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억의 대상과 관람자를 잇는 매개체는 감성을 자극시키는 예술 지향적인 공공디자인(Street Furniture Design), 조경 디자인(Landscape Design) 그리고 건축디자인(Architecture Design)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억을 통한 치유의 역할을 하게 한다.

2. 설계전제 및 기본방향

1) 설계방법의 접근

대상지는 현재 순례자 방문, 약현성당 야외 미사 등의 종교적 프로그램과 함께 근린공원으로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산책로 및 운동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원의 지하공간에서는 주차 시설, 자원재활용시설, 꽃 도매시장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프로그램과 이용을 수용하는 동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증진과 서울역 국제회의시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간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2) 설계방법의 구분

위의 설계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공간 재구성의 세부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6] 설계방법의 구분

방법	대상	접근방법
기존 조형물 재배치	순교기념탑	기념탑의 기존 배치를 유지하면서 미사 및 종교 활동을 위한 기도광장 조성
	윤관장군동상	서소문과의 장소적 연관성이 약하므로 이전
	환경조형물	공원 내 산책로에 재배치하여 생태적 요소와 조형적 요소가 어우러진 공간 연출
공간창출 & 구조물설치	감성산책로	도시공간의 움직이는 시간과 정지된 과거의 기억이 대비되는 공간 연출
	기동광장	사원 기동의 은유적 해석의 디자인으로 지하 순교성지 기념공간을 표상하는 광장
	센트럴 플라자	서소문 꽃시장 및 다양한 예술·문화 행사와 이벤트가 일어나는 역동적 공간으로 조성
	치유정원	주변 도시환경과 분리된 메모리얼공간과 연결된 치유정원은 휴식과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녹지 공간	도시공원으로서 산책/휴식을 위한 녹지 공간 제공
	메모리얼 브리지	시청과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설치
	카페/식음 공간	공원 이용의 활성화와 범죄 방지 효과를 위해 공원 내 센트럴 플라자에 카페 및 식음 공간 조성
	자원재활용센터 관리시설 주변	주변공간과의 차폐 및 관리자 휴식공간 및 소규모 모임공간의 기능을 고려한 공간 창출
경관연출	실개천	만초천의 기억을 담은 변화의 이미지 연출
	감성산책로	움직이는 시간과 정지된 시간의 대비를 기존 환경조형물 및 도시의 빛과 소리를 통해 연출
	기동광장	무성한 기동 숲을 연상하게 하는 경관 연출. 역동적인 물 분수를 통해 위압적인 공간보다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관 연출
지하 공간 리모델링	전시 공간	서소문지역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공간과 치유와 회복, 정화를 위한 메모리얼 공간 조성
	꽃 도매시장	기존 지하1층 꽃시장의 재배치를 통해 재구성
	지하연결통로	서울역 컨벤션센터에서 공원이하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보행통로 설치
	경비·관리시설	기존 지상 경비·관리시설을 지하공간에 조성

3) 설계의 방향

본 설계는 “이원의 기억”을 바탕으로 도시일상공간과 신성한 공간, 과거와 현재, 정지된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의 공존과 중첩을 기본 설계방향으로 설정하며 4가지 성격의 공간을 통해 구현한다. 주요 공간별 구분과 설계방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공간별 기본 설계방향

구분	주요 공간	설계방향
도시생활공간	센트럴 플라자	서울역 컨벤션과 인접한 도시오픈스페이스로 상업·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공간
	카페	공원에 다양한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 지상에 조성
	꽃도매시장	기존 지하공간을 재구성하여 마련
	지하 상업시설	꽃시장과 함께 지하 상업시설 조성
	자원재활용센터 및 주변공간	관리직원들의 휴식 및 소규모 현장학습 모임을 위한 공간 조성
	경비·관리시설	기존 공원 경비·관리시설을 지하에 조성
감성·체험공간	감성산책로	산책로에 따라 구조 벽을 설치하여 도시 빛과 소리의 예술체험을 극대화. 정지된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의 대비
	기동광장	사원기둥의 은유적 해석을 적용한 공간으로 장소가 가지는 기억의 흔적을 상징적 표상으로 나타냄. 콘크리트 기둥 숲과 물기둥의 이미지가 중첩되도록 조성하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 예술 감성체험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조성
	실개천 주변	물과 광섬유조명을 이용한 감성공간 조성
명상·치유공간	치유정원	원 형태의 구조물 설치를 통해 아늑한 명상·치유 공간 조성. 하늘 및 정원의 이미지
메모리얼 공간	기도 광장	서소문 순교성지 순례자 및 종교인을 위한 기도, 미사와 같은 종교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전시 공간	지상의 사원의 이미지가 연장되어 지하에서 구현되며 서소문의 장소적 기억과 역사, 문화를 알리고 기념하는 공간

2절. 설계 전략

1. 위로의 디자인

서소문 이원의 기억을 위한 위로의 디자인은 심미적 생태체험과 상징적 표상의 구조물을 통해 구현한다. 심미적 생태체험은 자연의 속성을 이용한 위로의 디자인이며 상징적 표상의 구조물은 원과 기둥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원의 상징적 의미

원은 상징적으로는 한정된 우주적 공간, 생명, 순환, 중심 등을 의미한다. 또한 구석기시대부터 태양의 상징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 인도 등의 신화에서는 태양신의 지물로 되어 있고, 천공, 광명, 영원, 힘, 조화, 통합 등도 나타낸다. 순환하는 원은 모든 움직임을 나타내며, 통합과 분할, 재통합, 진화와 퇴화, 성장과 퇴행, 생(生)과 사(死)의 과정 등 영원한 시간의 상징으로서 알려져 있다. - 네이버 지식사전



기둥의 상징적 의미

기둥은 건물 지붕의 하중을 초석에 전달하는 구조물이다. 기둥은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뼈대가 되는데, 집의 중심에 있는 기둥을 우주의 축으로 보는 고대 민족도 있다. 성경에서도 기둥은 우주의 상징 또는 신앙을 지탱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며 기념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기둥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형태를 취하여 백성을 인도하고 길을 밝게 비추어 준다(탈출 13,21-22)고 언급된다. - 성바오로딸수도회

2. 대중의 참여 과정

방문자는 설계가의 해석에 의해 구축된 공간에서 미적체험과정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미적체험은 연출된 치유공간을 통해 연상, 형상화, 내면화 과정을 거쳐 기억이 환기, 재구성 단계에 이른다. 방문자는 공원의 상징 구조물 또는 치유공간에

서 자연과 구조물 소재를 만지고 느끼는 행위, 기도와 명상을 행하면서 영적치유, 장소와의 소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하 전시관에서 문화·역사를 습득하는 동시 건축공간을 통한 예술적 감성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기억을 구축한다.

감성·치유공간	미적 체험	소통과 재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출된 자연공간 ·조형물과 건축공간 ·빛과 그림자의 요소 ·조경 디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감을 통한 지각과 인지 ·공간체험과 의식화 ·인공·자연물의 조화와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상, 형상화, 내면화과정 ·개인의 시각으로 재구성 ·새로운 의식과 기억의 구축





3. 건축 체험의 치유

지상 기동광장은 사원의 상징적 표상을 통해 기억의 흔적이 표출하였다면 지하 건축공간에서는 이것이 보다 구체화된 공간으로 재현된다. 사진과 자료를 나열하는 기존 전시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공간 디자인 콘텐츠를 도입하여 관람객은 객관적 정보를 습득하는 동시 건축공간을 활용한 예술적 감성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건축공간에서의 예술체험을 극대화 시켜주는 요소는 빛이다. 부재의 공간, 슬픔, 공포 등 서소문이 가지는 다양한 기억의 중첩을 표현할 수 있다. LED와 같은 인공광과 디지털 미디어 요소를 활용하여 메모리얼 공간에 있어 감정을 표현하고 관람객과 소통하고 감동을 이끌어 낸다.

4. 감성체험의 치유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감을 통한 체험이다.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변화는 자연물과 인공구조물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빛과 그림자, 재료의 재질, 소리, 움직임과 같은 요소를 활용하면 다양한 분위기의 감성체험 공간을 연출 할 수 있다.

[표 8] 감성체험의 요소

체험방법	인지요소	적용	이미지
변화	빛과 소리	인공광 설치 및 도시의 움직이는 빛과 소리의 변화 활용	
	물과 빛	기동광장의 인공광과 역동적인 물의 이미지를 통해 변화의 이미지 연출. 물과 소리의 체험	
차단	지형	지형 높낮이 조절과 땅의 절개를 통해 시각적, 감각적 차단 효과	
	구조물	감성체험로의 벽 구조물을 통해 도시공간의 Reveal & Conceal	
대비	움직임	도시의 움직이는 시간, 역동적인 공간과 공원의 정지된 기억, 정적인 공간	
	공간	지상과 지하공간의 공간체험의 대비	
중첩	물, 기동	기동광장, 수변 공간, 인공 빛의 중첩을 통한 기억과 치유의 이미지. 콘크리트 기동과 물기동의 반복과 중첩	

5. 내러티브적 접근

역사·문화 전시는 단순히 관련된 것들의 수집전시가 아닌 방문객들의 정신적, 감성적, 도덕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방문객들은 스토리 라인의 연속적 흐름에 따라 이동하면서 지적 경험과 감성적 경험의 인식의 과정을 체험한다. 내러티브적 접근은 방문자들로 하여금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자신과 분리된 새로운 관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몰입효과를 가진다.

3절. 공간기본구상

1. 이용자 예측

이용자는 기존의 직장인, 상업인, 지역 거주민 및 주변 숙박시설 이용 외국인 외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건립과 함께 변화하는 대상지의 정황을 예상하는 개인과 단체 이용자를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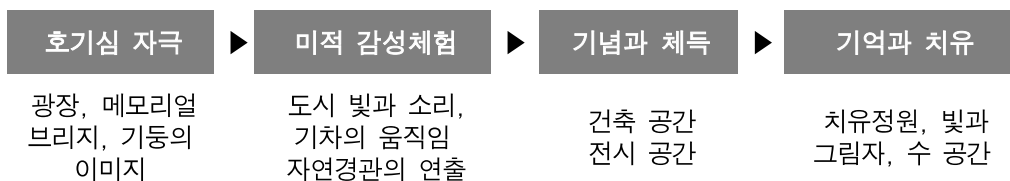
[표 9] 이용자 유형의 구분

이용자 유형		방문시기	예상 이용행태	필요 공간
개 별	직장인	연중방문 가능 점심시간, 퇴근 이후	점심식사 후 가벼운 산책 과 담화. 휴식 및 치유 목적	휴식 · 치유공간, 산책로
	상업인	연중방문 가능	근무 중간 휴식과 산책 임시 야외시장 활동	휴식 · 치유공간, 산책로
	청소년	연중방문 가능 주말, 공휴일	여가활동, 휴식 및 치유	휴식 · 치유공간, 산책로
	거주민	연중방문 가능	운동, 휴식 및 치유 목적	운동시설, 산책로
	관광객	연중방문 가능	문화 · 역사체험활동, 휴식	문화 · 역사전시관, 휴식 · 치유공간, 산책로
	컨벤션 이용자	연중방문 가능 (연중 컨벤션 개최 찾은 9,10,11월)	문화 · 역사체험활동, 휴식	휴식 · 치유공간, 산책로
	가 족	연중방문 가능 주말, 공휴일	여가 및 레저활동, 문화 · 역사체험활동, 휴식 및 치유	여가활동을 위한 오픈스 페이스, 어린이 놀이공 간, 휴식 · 치유공간,
단 체	동호회	주말, 공휴일	모임 등의 단체활동, 체험 과 감상, 실사촬영	단체 모임공간, 레저활 동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예술인	연중방문 가능 주말, 공휴일	예술적 영감과 동기부여, 휴식 및 치유, 예술 활동	전시 및 행위예술 등의 예술활동을 위한 광장
	종교인	연중방문 가능 (매주 금요일 미사)	모임, 순교성지순례, 야외 미사와 기도, 휴식 및 치유	야외 미사공간, 기도공간
	학 생	연중방문 가능	자원재활용센터 체험학습, 여가 및 레저활동	단체 모임공간, 레저활 동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2. 공간 내러티브

전체 공간 내러티브는 도시일상공간에서 점차 신성한 공간으로의 이동하면서 정신적, 감성적 변화를 체험하고 이것이 자상의 흔적이 확장된 지하공간에서 지적, 예술적 체험을 하게 된다. 도시일상공간은 개인의 기억은 혼재된 역동적인 공간에 존재한다. 체험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걷기를 통해 개인은 도시생활 공간과 분리된 미적체험을 하게 된다. 감성산책로를 따라 벽 구조물에 반사, 투영되는 도시의 움직임과 빛, 소리의 감각적 체험을 경험하고 램프를 따라 지하공간으로 진입하는 전이공간에서는 일상공간과 분리되는 연속적 과정을 경험하면서 전시관의 지적체험에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 공간은 넓은 폭원의 감성산책로와는 상대적으로 좁고 입체적인 공간으로 방문자는 전시 진입 전 비움과 침전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지하전시에서는 서소문의 전체 역사의 타임라인을 시작으로 장소가 가지는 다양한 문화, 역사의 층위를 시대별로 보여주는 지적 체험 공간이 전개된다. 순교성지로서의 의미를 승화시킨 사원의 기억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념공간으로 끝난다. 방문자는 지하 전시공간에서 지상 기억의 흔적이 확장된 메모리얼 공간의 감성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 지상 감성체험 내러티브



· 지하 감성체험 내러티브



3. 공간 프로그램

1) 감성·체험 공간

감성·체험 공간은 공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에 예술적 해석을 더하여 유동적, 참여적 기억을 유도하는 공간이다. 현 공원을 지나는 경의선 철도는 서소문 지역 역사의 단면으로 공원과 분리시키기보다 철도의 빛과 소리, 움직임 투영하는 감성 벽을 설치함으로써 공원 안으로 끌어들이는다. 그리고 옛 만초천의 기억을 담을 수 있는 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땅의 역사의 새롭게 해석하여 재현하도록 한다. 기동광장에는 메모리얼 공간의 상징요소인 십자기동을 병치함으로써 추상적, 예술적 이미지를 갖게 한다. 기동광장은 지하 메모리얼 공간의 상징적 표상으로 절대적 사실을 재현하거나 경외, 장엄함의 이미지가 아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도시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게 한다.

〔표 10〕 감성·체험 공간 프로그램과 연출방법

구분	프로그램	연출방법
감성 벽 산책로	명상, 산책, 환경조형물 감상 및 감각체험	기차의 빛과 소리, 움직임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벽 구조물 설치. 반사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감각체험 극대화
기동광장	물놀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콘크리트 기동 숲과 물기동의 이미지가 중첩되도록 조성. 다이나믹한 놀이공간으로 자유로운 활동 유도
수 공간	산책, 여가활동	만초천의 기억을 담은 공간으로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강조 기동광장의 인공빛이 수변공간의 야경을 돋보이게 조성

2) 명상·치유 공간

명상·치유 공간은 지상에서 지하까지 뚫린 약6m 높이의 원형 공간이다. 메모리얼 공간의 일부로 치유정원과 맞닿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방문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롭게 명상을 할 수 있다. 성당의 구조를 가진 메모리얼 공간에

서 치유정원은 제단이 위치한 신성한 곳에 배치하여 지난 기억을 승화시키고, 심신을 치유, 정화하는 공간의 의미를 가진다.

[표 11] 명상·치유 공간 프로그램과 연출방법

구분	프로그램	연출방법
치유정원	휴식, 명상 생태미학체험	원 형태의 구조물 설치를 통해 아늑한 명상·치유 공간 조성. 하늘 및 정원의 이미지

3) 메모리얼 공간

메모리얼 공간은 서소문지역의 문화·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도광장과 전시공간을 포함한다. 기도광장은 기존 현양탑을 철거하지 않고 새롭게 재조성함으로써 현양탑을 찾는 순례자와 종교인을 위한 공간을 유지한다. 전시 공간은 서소문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순교성지로서의 지역 역사 뿐 아니라 서소문 지역이 가지는 다양한 역사·문화의 층위를 담는다. 방문자는 전시공간을 통해 지적 경험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동시건축공간을 통해 감성적 체험을 하게 된다. 감성적 체험을 자극하는 메모리얼 공간은 광장의 십자기둥이 성당의 이미지로 구체화되어 표현된다.

[표 12] 메모리얼 공간 프로그램과 연출방법

구분	프로그램	연출방법
기도 광장	묵상, 기도, 성지 순례 단체 방문	서소문 순교성지를 찾는 순례자 및 종교인을 위한 기도공간이자 미사와 같은 종교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전시 공간	전시, 교육, 문화·예술체험	다양한 전시매체 활용 및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몰입효과를 극대화 한다. 성당의 이미지가 구체화된 메모리얼 공간은 지적경험이 승화되는 공간으로 빛과 그림자, 자연의 요소를 활용하여 감성체험을 극대화 한다.

4) 도시생활공간

도시생활공간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공간으로 도심녹지,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센트럴 플라자는 임시시장과 같은 상업 활동, 음악회, 퍼포먼스, 야외전시 등의 문화·예술 활동 그 외 사회,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변적 공간이다. 카페 및 식음공간은 공원에 활기를 되찾고 범죄예방을 위한 장치로 활용한다. 지하공간의 상업시설과 꽃시장은 서울역 컨벤션 센터와 연결하여 공원 내부로 또는 전시공간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자원재활용센터 주변공간은 현장학습을 위한 모임장소, 근무자 휴식 공간이 필요하지만 공원 이용자와의 동선과 혼재를 피해야 한다. 낮은 단으로 시각적 단절을 피하면서 공간의 구분을 하도록 디자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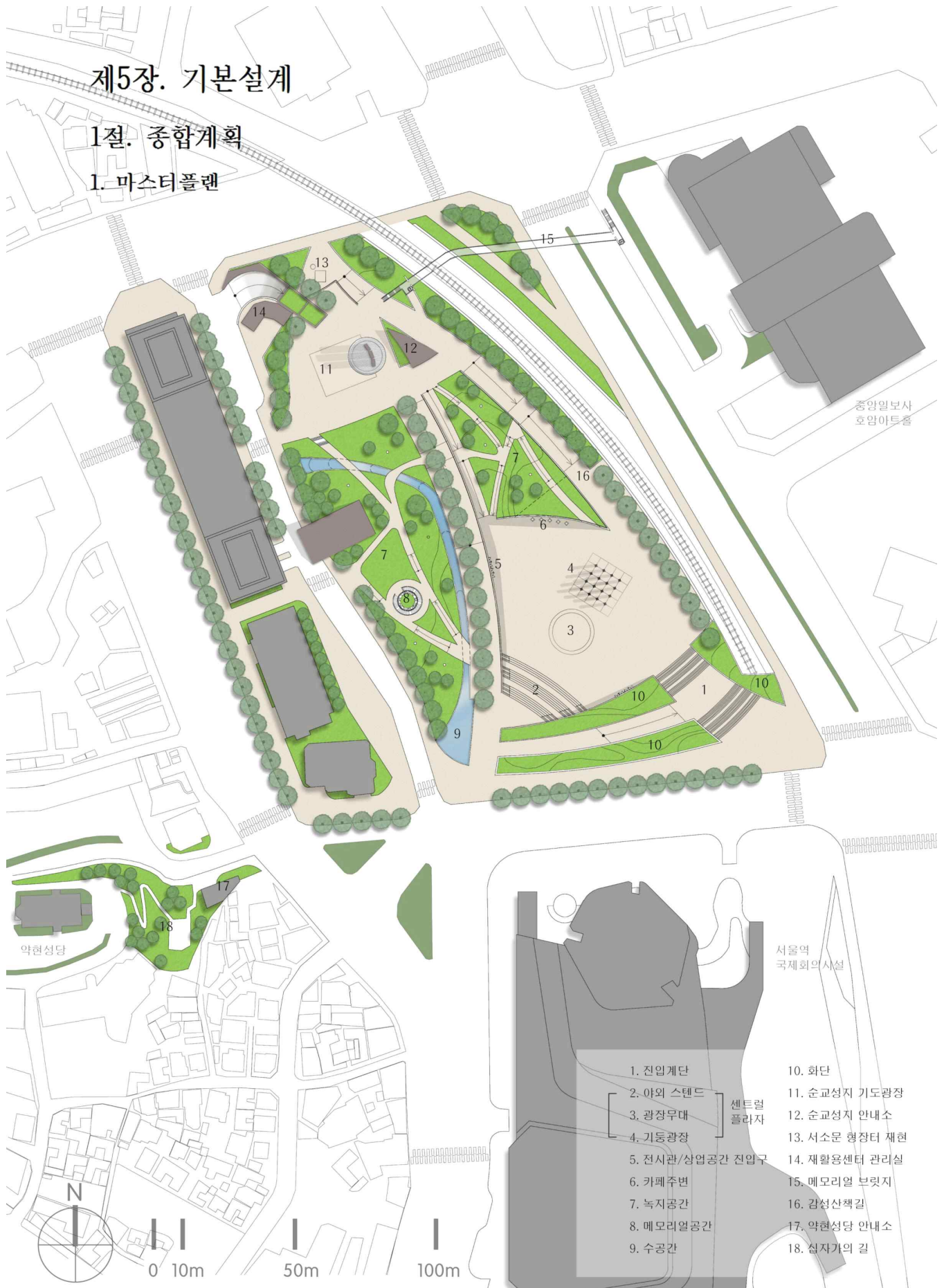
[표 12] 도시생활공간 프로그램과 연출방법

구분	프로그램	연출방법
센트럴 플라자	야외행사 및 전시, 임시 꽃시장, 문화·예술 활동, 종교행사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가변적 공간, 분수와 기둥을 통해 광장 이미지 연출
카페 및 식음공간	식음제공, 휴식	공원에 다양한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 지상에 조성
꽃도매시장 외 지하 상업시설	상업 활동	기존 꽃 도매시장 재배치, 추가 상업시설 공간과 컨벤션센터와의 지하 연결로 계획. 지상 공원의 이미지와 연결되도록 지하 공간 설계
자원재활용센터와 주변공간	초등학교 현장학습, 근무자 휴식 및 여가	소형 오픈스페이스로 근무자 휴식 및 현장학습 모임공간의 기능 수용
경비·관리시설	공원 유지·관리	지하공간에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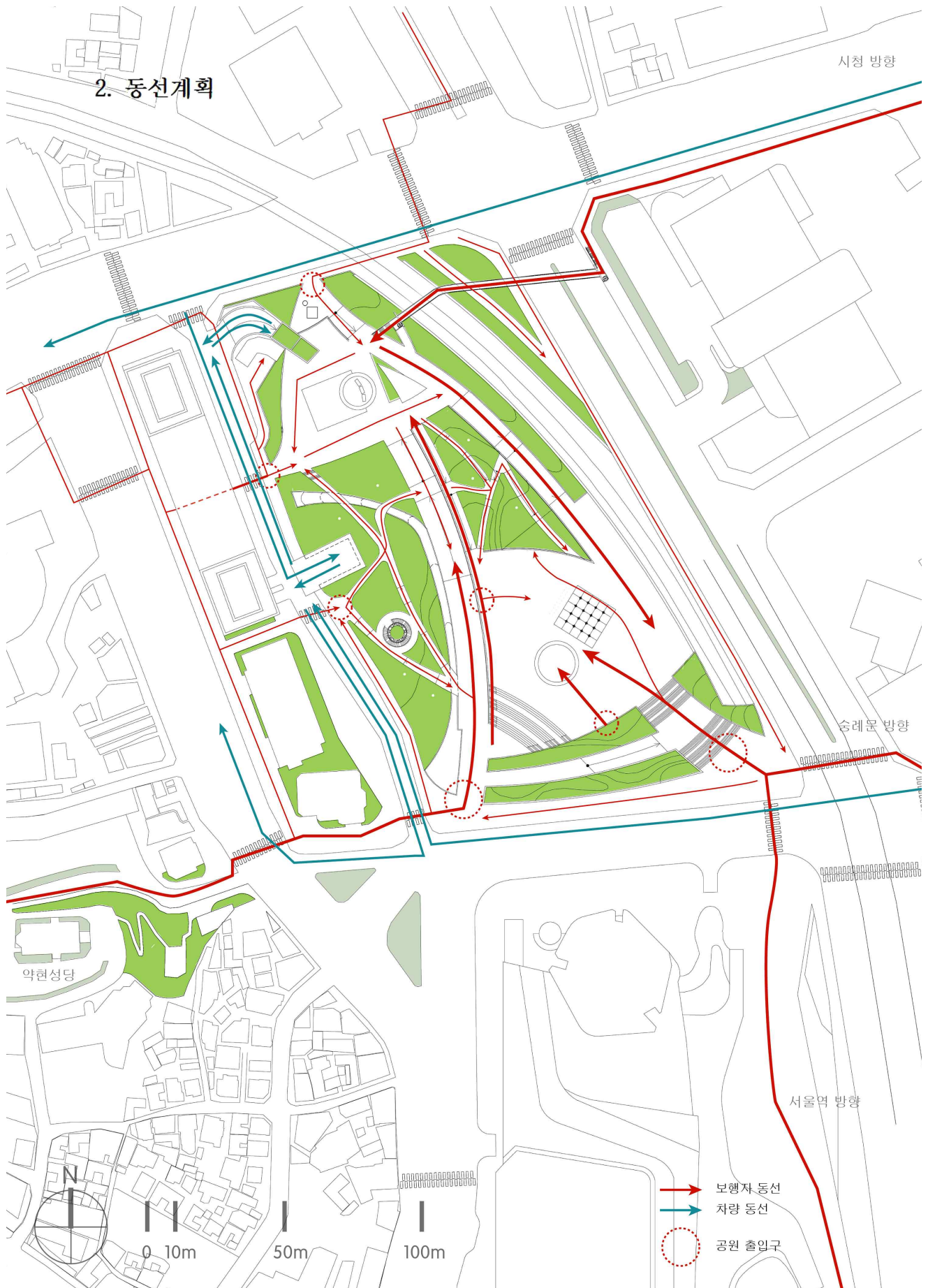
제5장. 기본설계

1절. 종합계획

1. 마스터플랜



2.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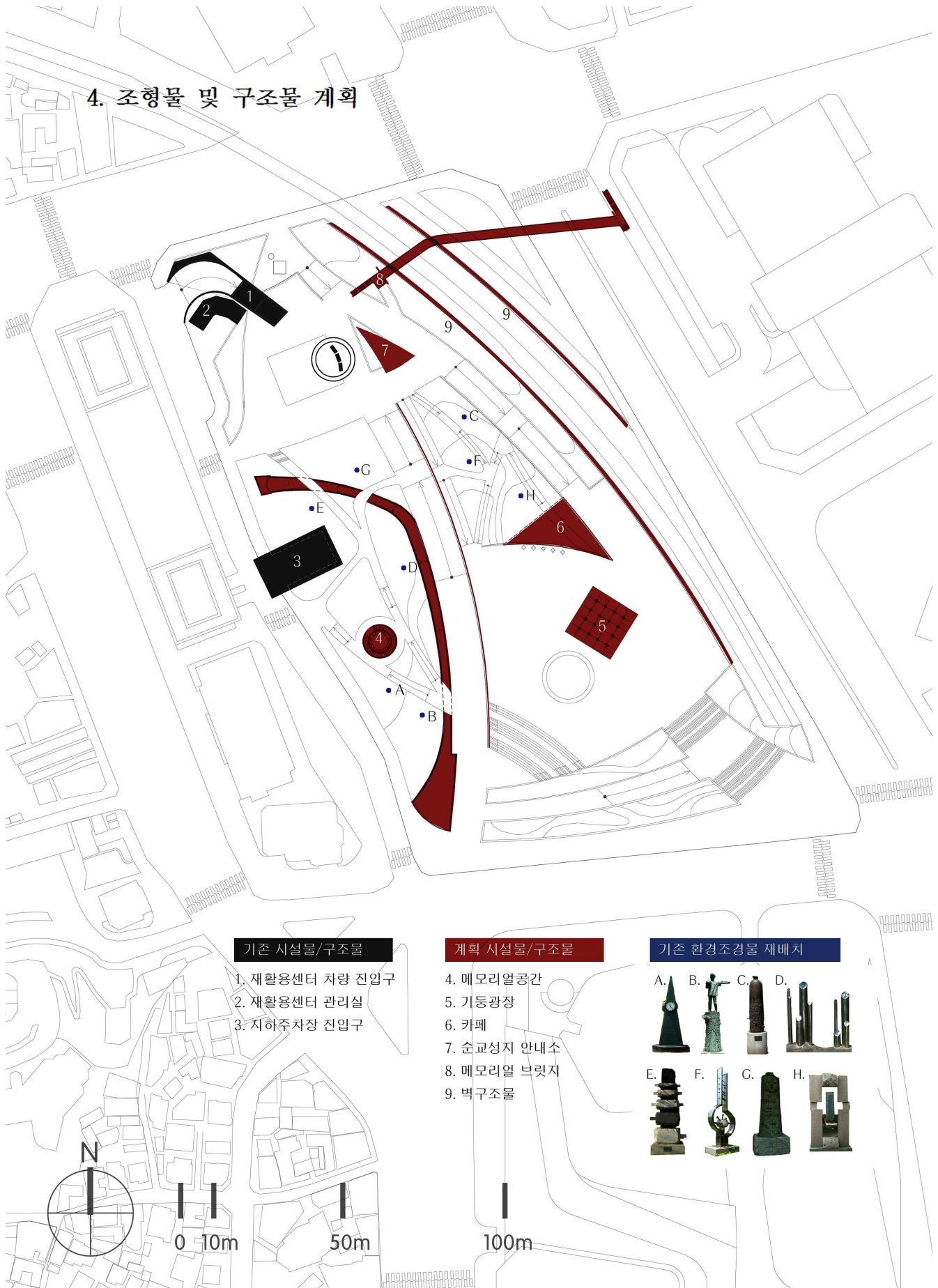


3. 지형계획

This topographic plan illustrates the site's terrain and proposed infrastructure. Key features include:

- Contour Lines:** Elevation points are marked throughout the site, ranging from x25.0 to x34.5. Contour lines are drawn at intervals of 0.5 units.
- Proposed Infrastructure:** A network of roads and paths is shown, including a main road (x30.0) and several smaller roads (x29.0, x29.2, x29.4, x29.5, x29.6, x29.7, x29.8, x29.9, x30.1, x30.2, x30.3, x30.5, x30.8, x31.0, x31.1, x31.2, x31.5, x32.0, x32.2, x32.5, x33.0, x33.1, x33.5, x34.0, x34.5, x37.0).
- Landmarks:** A circular feature (x30.0) is located in the upper left, and a rectangular feature (x30.0) is located in the lower right.
- Scale and Orientation:** A north arrow is located in the bottom left corner, and a scale bar indicates distances of 0, 10m, 50m, and 100m.

4. 조형물 및 구조물 계획



5. 식재계획



활엽/상엽 교목

1. 은행나무



2. 느티나무



3. 자작나무



4. 배롱나무



5. 청단풍



6. 홍단풍



초목

A. Grass



7. 이팝나무



8. 왕벚나무



9. 목련



10. 산수유



11. 잣나무



12. 소나무



B. Flower bed



0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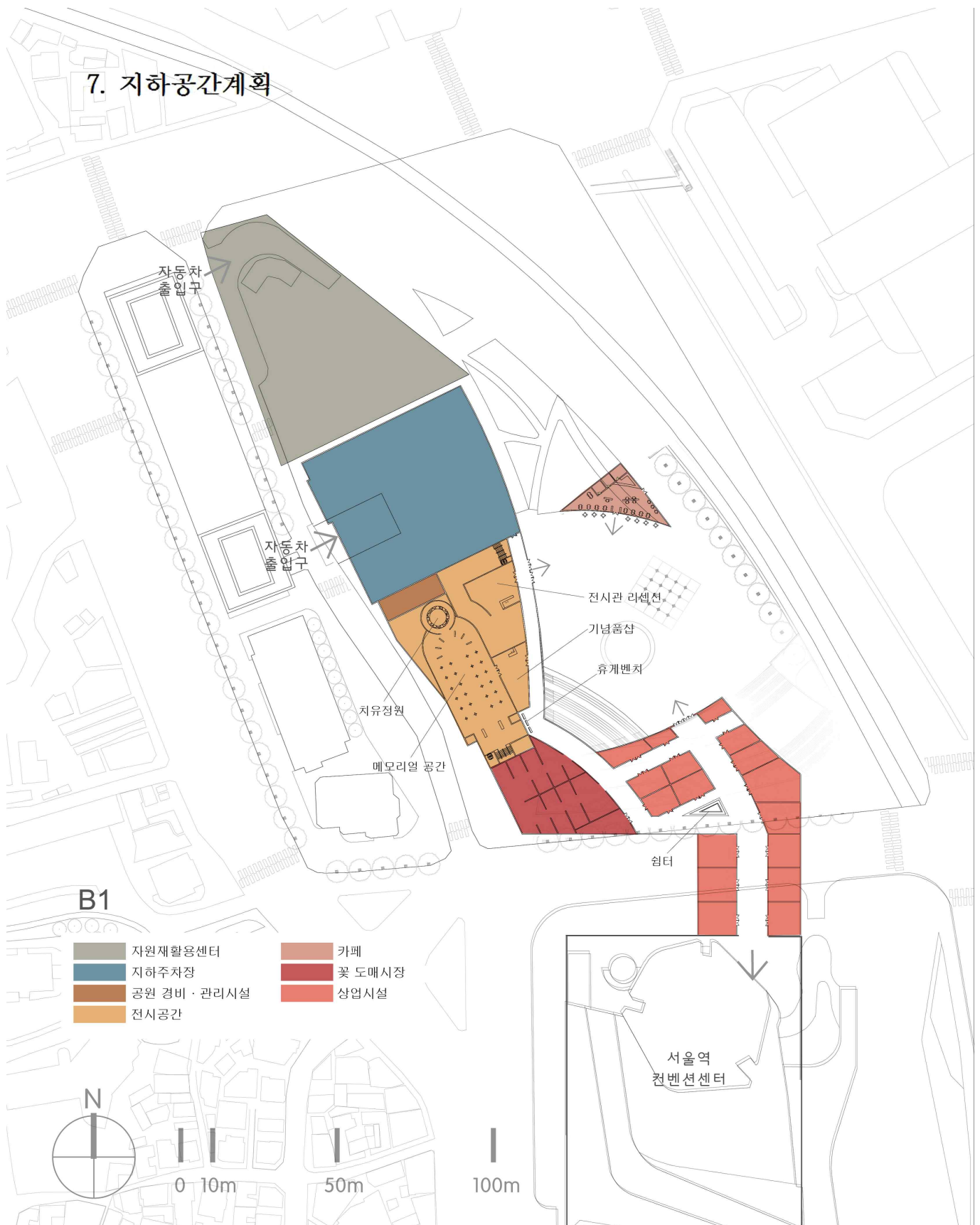
50m

100m

6. 포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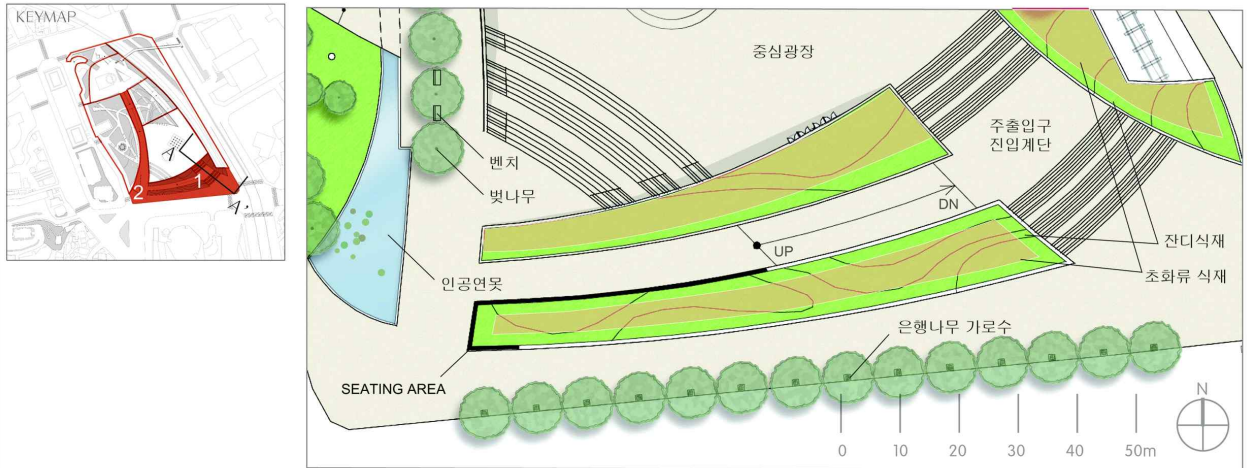


7. 지하공간계획



2절. 세부공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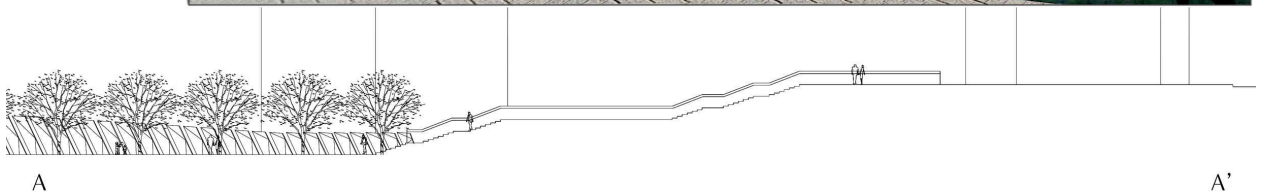
1. 주출입구 및 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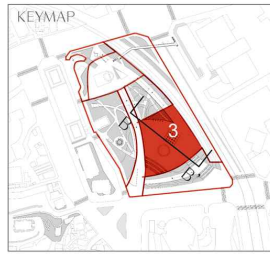
1. 주출입구 공간: MAIN ENT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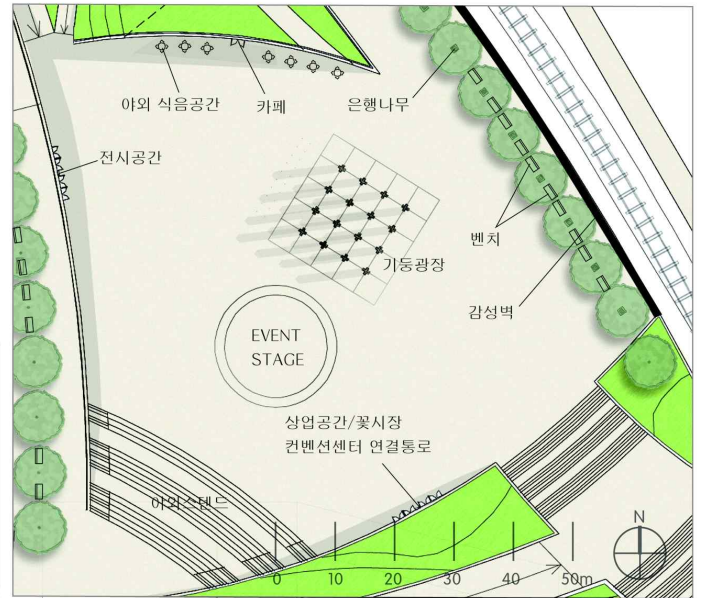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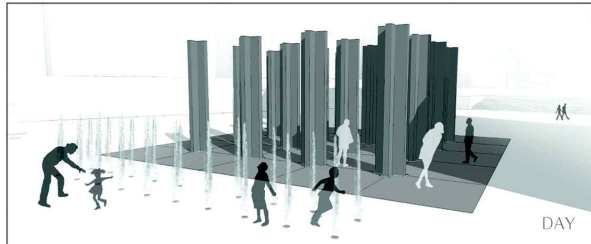
2. 벚나무길 / 수공간: CHERRY BLOSSOM PROMEN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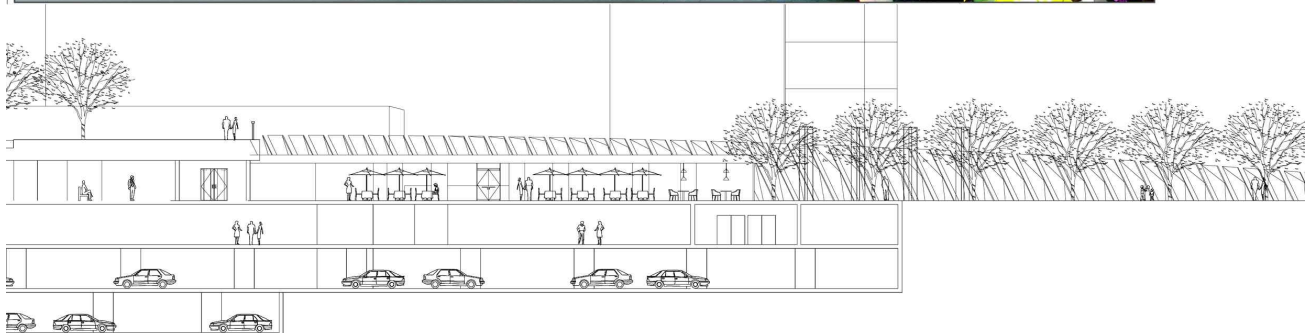
2. 센트럴 플라자



센트럴 플라자 내 기동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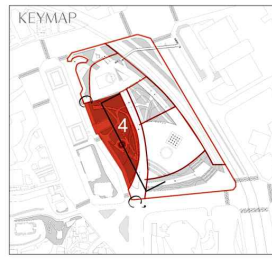
3. 센트럴 플라자: CENTRAL PLAZA



B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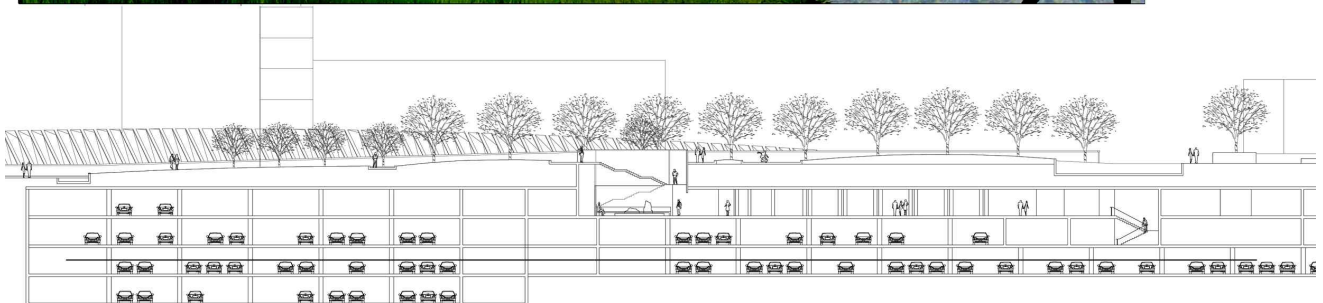
3. 녹지 및 치유정원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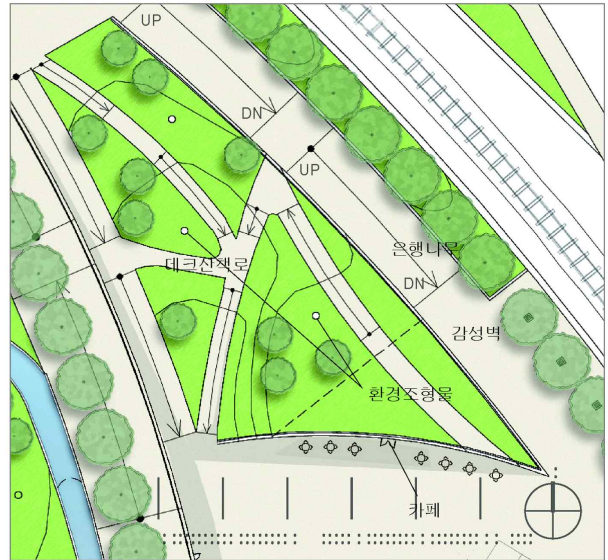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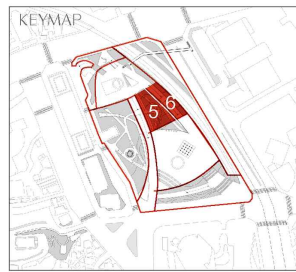
치유정원: SECTION



메모리얼 공간 출입구: SPIRAL STAIRS TO MEMORIAL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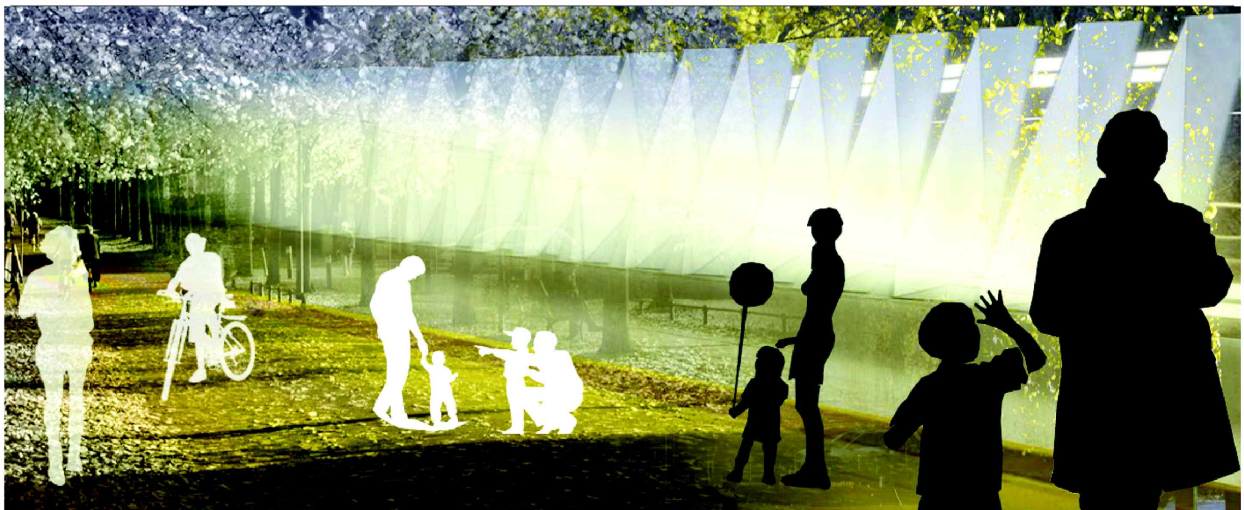
4. 녹지 및 감성 벽 산책로



5. 녹지공간 및 산책로: GREEN WALWAY



6. 감성벽 산책로: WALL OF LIGHT&S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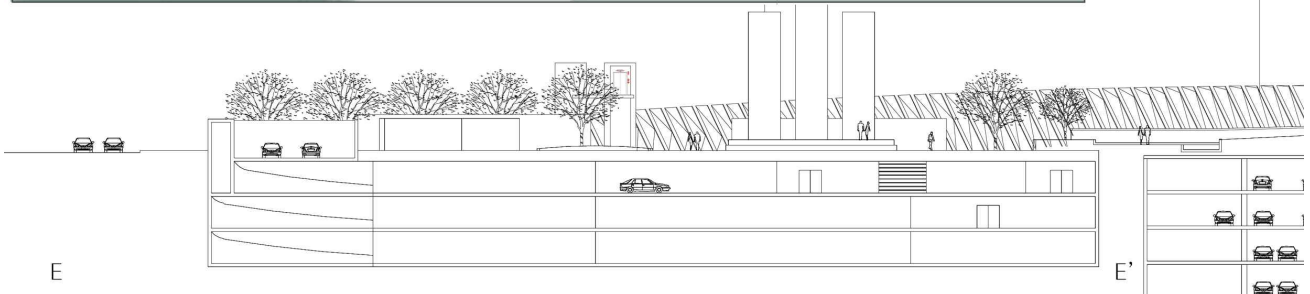
5. 기도광장 및 옛 행형장 터



7. 기도광장: PRAYER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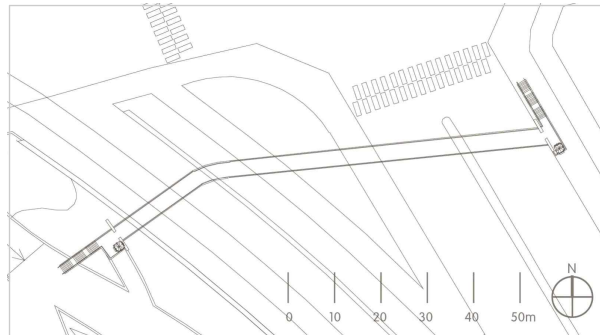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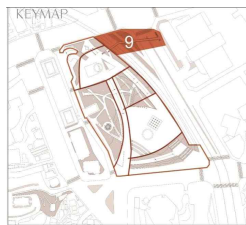


8. 진입광장(옛 형정터 재현): GATEWAY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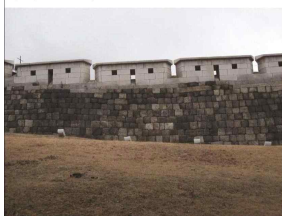


6. 메모리얼 브리지

메모리얼 브리지는 한양도성과 서소문 성문의 형태를 모티프로 하여 지금은 사라진 옛 순교자들이 서소문 성문을 통과하여 형장을 향해 걸었던 길을 상징한다. 공중보행로 양쪽에는 두 개의 관문과 같은 넓은 기둥이 있어 방문자들로 하여금 관문을 통과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했다. 재료는 반투명 유리와 철골구조물을 사용해 현재는 사라진 과거의 기억을 재현한다는 개념을 나타낸다. 메모리얼 브리지는 기념 상징구조물이자 기존 경의선 철도로 단절되었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며 명동성당에서 약현성당으로 이어지는 천주교 성지순례 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 모티프: DESIGN MOT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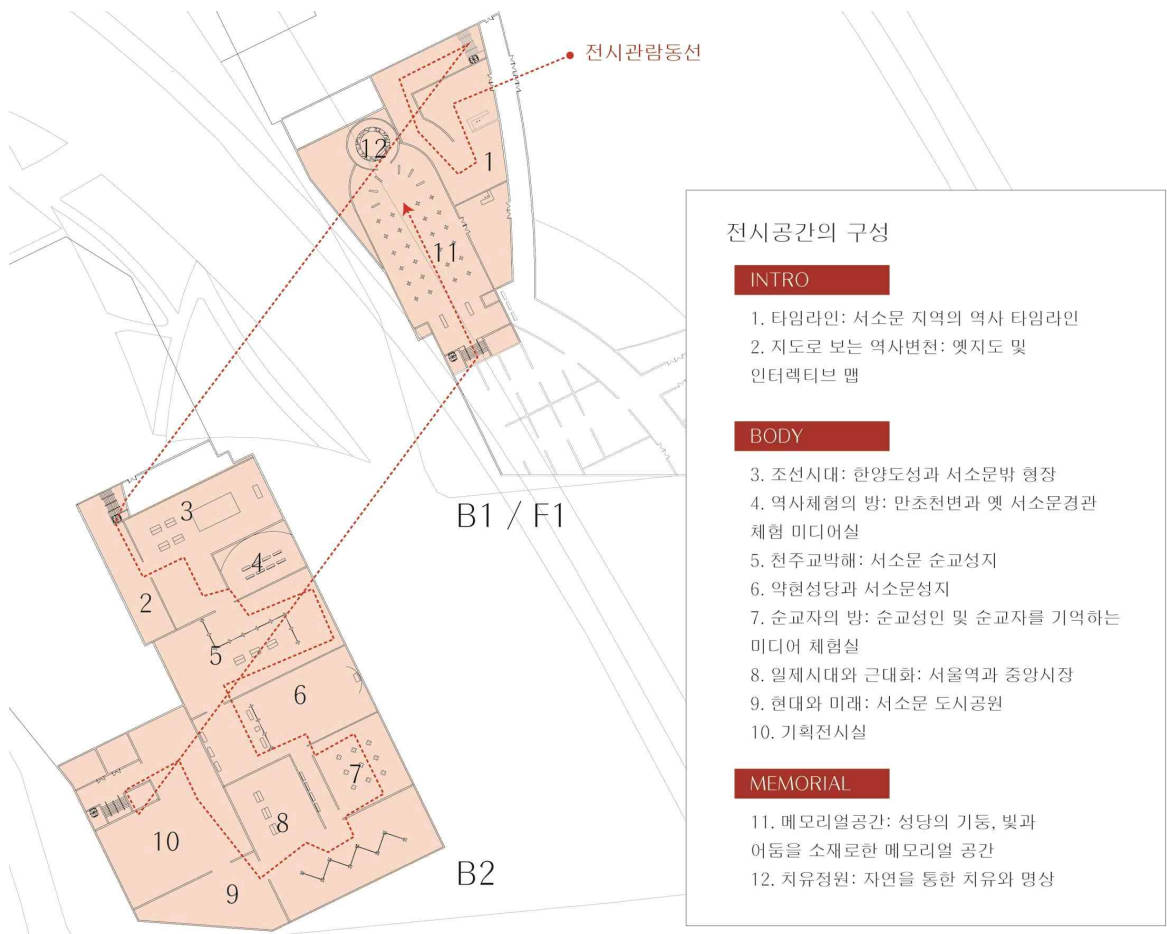


MATERIAL: GLASS/STEEL



7. 전시 공간 계획

전시공간은 순교성지로서의 장소적 역사 외에도 지역의 역사·문화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전시관은 현 서소문공원의 지하1,2층을 리노베이션하여 조성한다. 전시관 리셉션은 공원 센트럴 플라자에서 또는 서울역 컨벤션센터와 이어진 지하 통행로를 따라 직접 진입가능하다. 전시는 지적 경험과 감성적 경험을 함께 제공하여 관객을 몰입시켜 교육적 효과와 치유, 회복의 마인드를 심어준다. 전시 구성은 전체 지역 역사의 맥락(1,2번)을 이해하면서 시작하여 각 시대별 주제(3~9)에 따라 다양한 체험전시매체를 활용하여 전개된다. 기획전시를 위한 공간도 마련하여 주변의 다양한 예술·문화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전시를 관람한 방문자는 서소문순교성지를 기념하는 메모리얼 공간(11번)에 진입하게 된다.



성당의 공간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메모리얼공간은 지상 기둥광장의 십자기둥들이 다시 활용되어 관람자가 처음 공원을 진입했을 때 상징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기둥의 이미지가 전시를 통한 지적경험 후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기억과 공간으로 인식된다. 성당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본래 제단이 있는 곳에 지상과 연결된 치유정원을 조성하여 관람자가 빛, 하늘, 자연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메모리얼공간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은 빈 공간으로 관람자들 마음의 안식과 치유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전시 내러티브의 결론은 과거 순교자들의 희생과 죽음의 기억들이 슬픔이나 공포의 기분에서 정화, 승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메모리얼/성지순례 체험 동선

천주교인 및 성지순례를 경험하고자하는 방문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체험동선을 제안한다. 이는 명동성당-서소문성지-약현성당-당고개성지 등으로 이어지는 전체 서울성지순례 동선을 고려한 것이다.



Bridging the Past & Present

1.메모리얼 브리지: 옛 순교자들이 걸었던 길 연상, 회상



Commemorating History

2.옛 행형장 터: 서소문 지역 역사 기억
3.기도광장/성지안내소:묵상과 기도
4.기둥광장:새로운 해석과 표현의 장치



Memory & Cognition

5.전시 공간: 지적체험, 기억의 공유
6.메모리얼/치유정원: 정화, 회복,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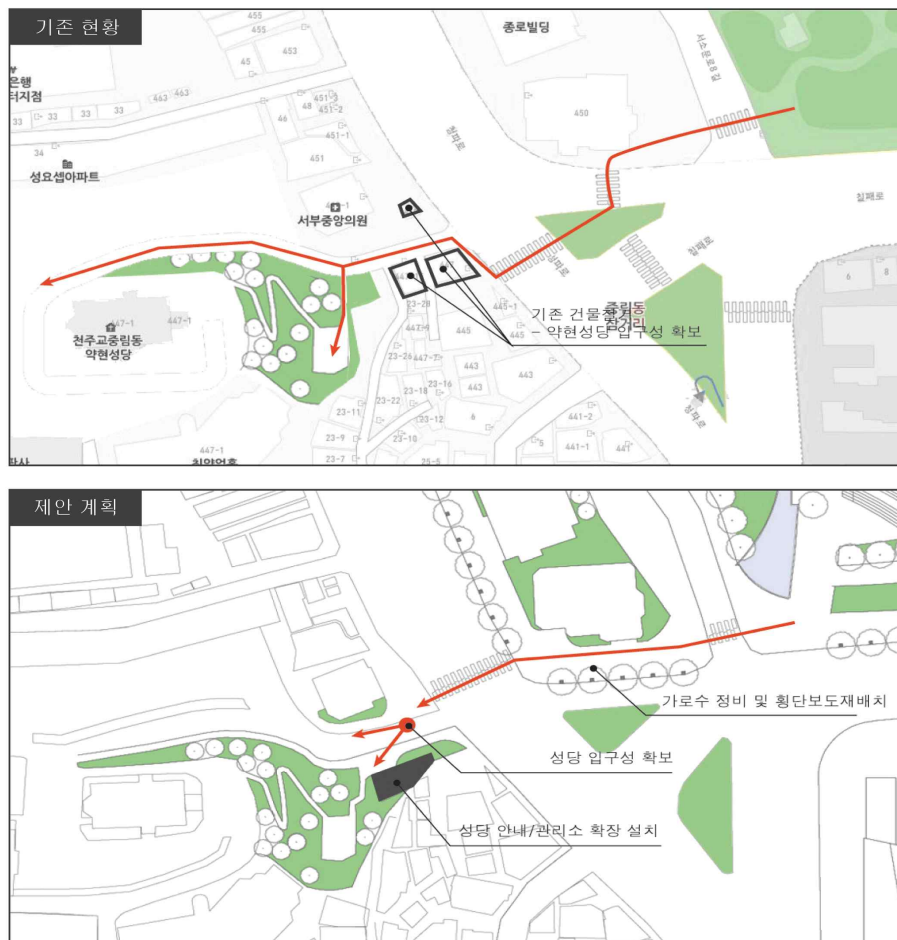
Connecting Sacred Places

7.약현성당: 십자가의 길, 성지순례 체험의 확장과 연결

3절. 주변지역과 연결방안

1. 약현성당

본 설계는 서소문의 장소적 의미와 깊은 관계를 갖는 약현성당과의 물리적, 시각적 연결을 위해 접근성 개선 및 성당 정문의 입구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제안한다. 기존 서소문공원에서 성당으로 접근하는 동선은 아래 [그림1]과 같이 xx을 통해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다. 주변의 고층건물 현황으로 공중보행로 설치를 통한 연결은 보행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며, 약현언덕 위의 성당이 보이는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횡단보도 재배치 및 가로경관 재정비를 통해 보행자의 접근성 개선 및 녹지경관을 연결하는 계획을 제안한다.



[그림 43] 약현성당과의 연결방안 (위 기존현황/아래 제안계획)

현 약현성당 정문은 게이트형태의 간판구조물로 표시되어 있으나 주변의 복잡한 가로경관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띄지 않고 성당 위로 올라가는 자연경관을 가리는 단점이 있다. 서소문성지에서 성당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경관구성 및 입구성 확보를 위해 현재 정문 옆에 위치한 한 개의 가건물과 2개의 건물을 철거하여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공간 및 성당 안내소·관리소를 설치한다. 또한 가로 식재를 통해 성당으로 진입하는 주통행로와 “십자가의 길”로의 진입하는 길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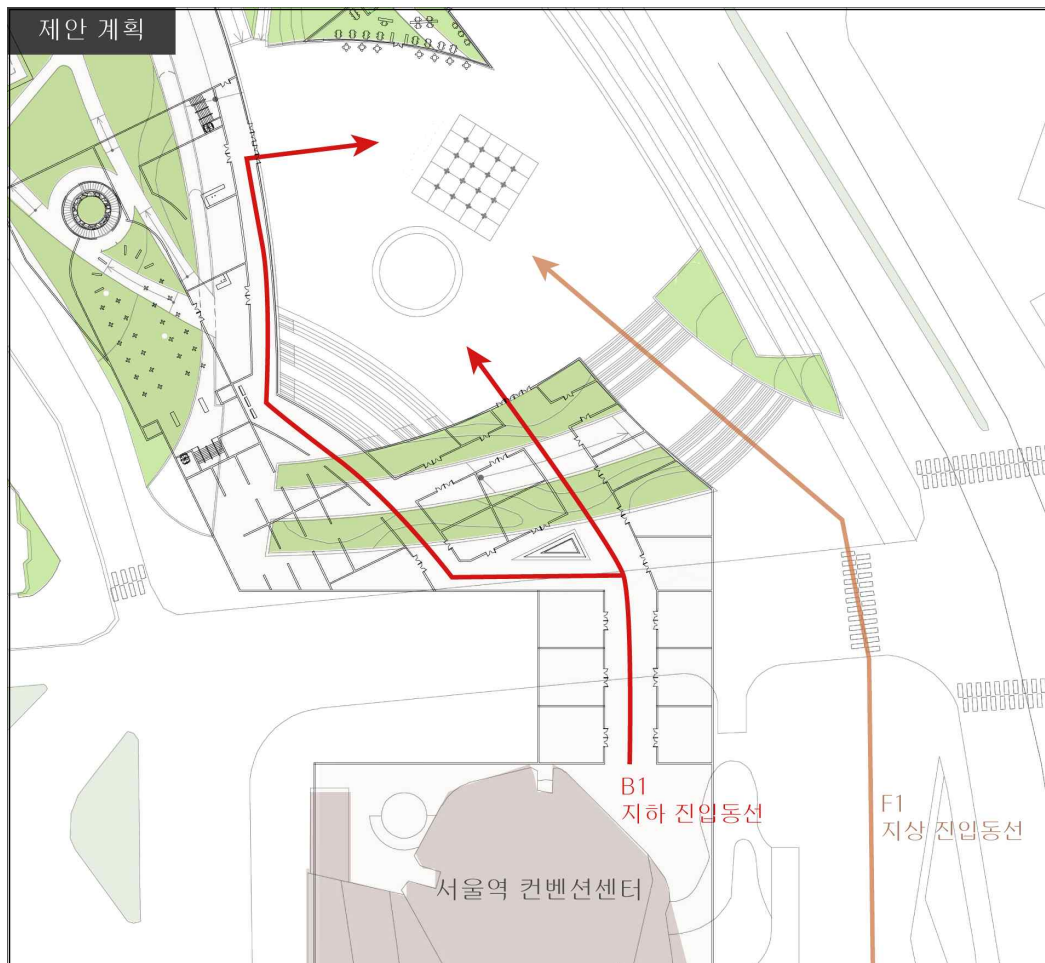
[그림 44] 현 약현성당 정문경관



[그림 45] 약현성당 정문경관 위한 대안

2.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본 설계는 현재 조성중인 서울역 컨벤션센터와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지상뿐 아니라 지하로 연결되는 보행통로 및 지하 상업공간 조성을 제안한다. 기존 서소문공원의 지하 공간의 활용, 컨벤션센터 지하공간과의 연결을 통해 서울역, 서울역 컨벤션센터 그리고 서소문공원까지 지하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지상으로는 공원 주출입구의 계단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로는 센트럴 플라자로 통하는 두 개의 출입구로 진입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서울역 공항터미널, 지하철, 컨벤션 이용자의 보행 접근성을 높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그림 46] 서울역 컨벤션센터와의 연결방안 (지하/지상 진입동선)

3. 주변 고가로 및 지하로 계획

본 설계에서는 기존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서소문고가로 철거 및 의주로 지하차도 폐쇄를 통해 도시조직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도시미관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서소문 고가로 철거를 통해 서대문역 방향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경관축을 확보하고, 시청-대상지-손기정체육공원-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한다. 최근 서울시내 도시경관개선을 위해 낙후한 고가로를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역 고가도와 함께 서소문고가로도 철거 우선순위 안에 들어 있어 향후 철거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폐쇄한 의주로 지하차도 공간은 경의선 철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를 이전시켜 공원 내에 출입구 공간을 확보 한다.



[그림 47] 대상지 주변 고가로/지하로 및 구조물 이전 및 철거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서울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서소문순교성지를 위해 종교공간과 도시 일상공간의 절충적 공간계획을 제안했다. 기념성의 측면에서는 천주교인만을 위한 메모리얼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메모리얼로 서소문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존중하고 현 공원의 복합적 기능과 시설을 고려하여 일부 물리적 요소는 보전하면서 공간을 새롭게 재조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억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역 기념비(Counter-Monument)의 개념을 도입하여 예술 지향적 조경 디자인 및 공공디자인(Street Furniture Design)을 적용하였다. 도시적 측면에서는 주변도시계획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시설계획을 통해 도시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부지에만 메모리얼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점적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과의 유기적인 연결방안을 모색하여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메모리얼 디자인 연구에서 벗어나 도시적 측면에서 주변의 도시개발계획을 기반으로 순교성지를 접근했다는 점과 땅이 가진 다양한 역사 층위를 예술 지향적 조경 디자인과 역 기념비의 개념을 적용해 계획을 제안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도시공간의 역사적 층위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억들이 중첩, 융합 또는 소멸되어 나타난다. 때문에 메모리얼이 조성될 장소에 따라 어떠한 기억의 대상을 보전 할 것인지 또 새롭게 재조성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조성 이후 장기적으로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 될 시 공원 확장을 위한 비전제시, 광역적으로 대상지 계획이 도시공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으며 서소문지역의 특수한 입지조건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계

획을 제안한 것으로 순교성지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의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서소문 공원은 특별한 장소성 그리고 복합적 기능을 가진 입체공원으로서 많은 잠재력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리노베이션 계획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다 성숙한 메모리얼 계획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서소문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논의와 도시, 조경, 건축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ABSTRACT

**Seosomun Park Design & Planning:
Sacred Memorial as Urban Park**

Advised by
Prof. Zoh Kyung-Jin

April, 2012

Submitted by
Yoon Hyosu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Urban space is a continuum of historical, social change, where new urban form and structure appear and demolish. In this process a place may acquire new form or meaning completely different to its previous. Seoul, a city of 600years in tradition and history, accumulated various historic layers within time. However,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aggressive urban development, there was few successful cases in Seoul where landscape practice found a comprehensive solution between historic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religious memorial within the urban context. Thus, in my thesis I will propose a comprehensive planning & design solution including space, facility and program for Seosomun Park to renew it as an urban core in memory of its religious and historic “placeness”.

BACKGROUND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for Seosomun Park’s renewal. (1) The area where Seosomun Park stands developed various layers of historic memory throughout Chosun Dynasty, Japanese Colonial era, Korean War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also a religiously sacred place where many martyrs were executed; 44martyrs from this area were announced as patron saint. There are continuous debates in consideration of redesigning Seosomun Park in light of its religious meaning and currently this issue is becoming a feasible reality. (2) Adjacent to the south side of the park a development plan for Seoul St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Hall is taking place. In the future, Seoul Station will become a culture, business and, commerce center. Seosomun Park will need to reform as a flexible urban park in response to the changes needs of this area. (3) Seoul government is planning to register Seoul fortress as UNESCO World Heritage and is currently building a fortress trail that connects the city. Seosomun Park is located right outside where a fortress gate(the name Seosomun comes from this gate name) used to stand. Seosomun Park holds great potential to become a destination place in connection with the fortress trail program.

SITE ISSUE AND POTENTIAL

Site issues drawn from the site analysis are (1) Weak Identity: diverse artifacts and function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park without order and identity. The Park should have a strong identity adequate to its locational importance near Seoul Station and City Hall. (2) Poor Accessibility: the site is surrounded by Seousomun overpass and Gyeongui Line Railway with poor visual and physical accessibility. (3) Basic Management: currently park only covers basic utility management. Site potentials drawn from the site analysis are (1) Foreign visitors: due to the increase in hotel facilities such as Fraser Place Hotel is bringing increase in foreign users. (2) Development plans near Seoul Station: Seoul Station Convention Center, Fortress Trail Program will bring new opportunities (3) Urban leisure & Walking: there is a increasing need for green spaces to enjoy urban leisure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lso many city walker visitors are expected due to the recent popularization of walking in the city.

DESIGN CONCEPT

DUAL MEMORY AND REVIVAL THROUGH COMMEMORATION

Located in the urban center, Seousomun park has conflicting needs in spaci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It requires to become a urban park for leisure, recreation, cultural activities but also a memorial for catholic martyrs and historic memory. In my design I would like to merge Seousomun's historic memory into the urban daily life. Considering that today is a continuum of the past and that the landscape of Seousomun has continuously changed in form and function from Manchoo riverside to a fish market, execution ground and railway station. In my design I would like to incorporate this idea of dynamic change and create a flexible space for historic commemorate and urban use. The landscape will actively integrating its surrounding urban environment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Seoul Station Convention Center plan. The design will also take in consideration of possible future change in urban structure such as Gyeongui Line Railway going underground or removing Seousomun overpass.

KEYWORD: Memorial, Memorial Design, Catholic Martyrs' Shrine, Seosomun Park

STUDENT ID#: 2010-23905

■ 참고문헌

국내 도서 (단행본 및 편집서)

- 나각순(2004). 『서울의 성곽』.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이돈수·이순우(2009). 『고레아 에 고레아니』. 도서출판 하늘재.
- 김도형(2010). 『순성의 즐거움: 서울성곽 600년을 걷다』. 파주: 효형출판.
- 이선민(1997). 『한국의 성지-천주교편: 순교자들의 피가 강물이 되어』. 샘터의 ‘한국의 성지’ 시리즈.
- 성기숙(1988). 『한국의 성지: 순교자의 발자취』. 크리스찬 출판사.
- 이충우(1981). 『다시찾는 한국의 성지』. 분도출판사.
- 서울문화사학회 창립 25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2011). 『조선시대 서울 한양 도성 서소문과 천주교 박해』

국내 도서 (논문)

- 김석하(2011). 『대전차방어선의 메모리얼 트레일 계획』. 서울 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도경, 이한송(1999). “기념경관의 물리적 형태구성에 관한 연구: 파리공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부설디자인연구원 논문집』. Vol2. 경희대학교 디자인연구원.
- 김상석(2002). 『명동성당 성역화 및 주변지역 정비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노윤경(2008). 『서소문공원 리노베이션 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은미(2008). “현대메모리얼의 개념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6.
- 박찬우(2005). 『기장군 두명리 부산시립 추모공원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영주(2008). “기억의 형상: 메모리얼 디자인”.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5.
- 오원전(2003). 『용의 분석 심리학에 의한 기독교 상징미술이 미술치료에 미

- 치는 영향』. 서울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지연, 정회원(2010).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공간의 가치와 디자인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2호
- 유진근(1996). 『기념공원설계에 있어서 기념경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병림(1996). “공원설계에 있어서 기념성의 문제”. 『한국조경학회지』. Vol.24. No.4.
- 이상석(2010). “한국전쟁 메모리얼의 설계요소에 나타난 기념성”. 『한국조경학회지』. 38(1): 12~24.
- 이재정(2011). 『용도지역별 생활권공원의 이용실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삼(2006). 『한국 가톨릭 성지의 조성에 관한 해석: 서울대교구와 수원교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편영희, 이소진, 박찬일(2011). “SANAA의 미술관 건축에 나타나는 공공성 구현의 방법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31호.

해외 도서

- Chuck Pettis(1999). *Secrets of Sacred Space: Discover and Create Places of Power*. Llewellyn Publications.
- Hanna Segal(1990). *Dream, Phantasy and Art*. Routledge.
- John R. Stilgoe(2008). *OLIN Placemaking*. The Monacelli Press.
- Robert H. Stoddard, Alan Morinis(1997). *Sacred Places, Sacred Spaces: The Geography of Pilgrimages*. Geoscience Publications. Department of Geography and Anthropology. Louisiana State University.
- Mircea Eliade (Translated by Willard R. Trask) (1959).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Harcourt Brace & Company.
- Sauer, C. O.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